# 「漢書藝文志」의 性格

沈 暎 俊*

≪目 次≫

緖 言
Ⅰ. 「七略」과 「漢志」의 關係
Ⅱ. 書目에 나타난 「漢志」의 性格
Ⅲ. 小序·總序에 나타난 「漢志」의 性格
結 言

## 緖 言

「漢書藝文志」(以下 漢志)는 六略으로서 38種, 596家, 13,269卷[1]의 典籍을 目錄하고 있다. 이것은 漢高祖에서 비롯하여 王莽의 誅에 이르기까지 紀元前 206年부터 紀元後 23年까지 229年間의 史實을 엮은 80萬字의 尨大한 「漢書」속에 收錄되고 있는 一部分이다. 그러면서도 그 價値가 자못 높이 評價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오늘날 볼 수 없는 佚書인 「七略」의 片貌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七略」은 原來 漢의 成帝의 命을 받아 劉向 등이 秘府書를 整理[2]해 둔 目錄으로 東洋에서는 最初의 尨大한 것이며 오늘날 圖書館 業務에서도 注視의 對象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當代硏究에 있어 典籍有無를 確認하는 道具에만 그칠뿐이 目錄이 어떻게 編成되었으며 動員된 人的 水準을 비롯하여 무엇을 起點으로 하고 窮極의 目標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性格의 目錄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關心밖인듯 싶다. 筆者는 이러한 面을 念頭에 두고 可能한 限 書目을 通해 본 價値와 小序·總序를 通해 본 淵源은 勿論 有用性에 이르기까지의 그 正體를 밝혀 보고자 한다.

## Ⅰ. 「七略」과 「漢志」와의 關係

班固 自身의 序에 「七略」을 紹介하고 있다. 「七略」이 이루어진 動機는 單純치 않다. 孔

---

* 中央大學校 文理科大學 敎授

(1) 「漢書藝文志」는 班固(32~92)의 撰이오, 中國現存의 最初의 目錄에 關한 文獻이다. 그 內容을 보면 六藝, 諸子, 詩賦, 兵書, 數術, 方技등 六略으로서 38種, 596家, 13,269卷으로 되어있다. 《楊家駱 編, 新校漢書藝文志, 臺北, 世界書局, 民國 52.(中國目錄學名著, 第3輯) p.1. 前言》

(2) 秘府의 册은 孝武帝때부터 이미 書가 缺하고 簡이 脫하고 禮가 무너지고 樂도 무너져서 孝武帝가 이를 민망히 여겨 藏書之策을 講求하고 寫書官을 두어 諸子傳說의 書를 秘府에 간직했다. 이러한 뜻을 이은 成帝는 藏書의 散帙을 充當하기 爲하여 謁者인 陳農에게 天下의 書를 蒐集케 하고 光祿大夫 劉向 등을 시켜 秘府書를 整理케 했다. 《班固撰, 顏師古注, 前漢書, 影印, 臺北, 啓明書局, 民國 50, 前漢書, 卷 30, 藝文志, p.285. 段上》

子가 世上을 떠나자 隱微한 道가 끊겨졌고, 70弟子마저도 죽자 大義가 무너져 春秋가 左氏, 公羊, 穀梁, 鄒氏, 夾氏 등 다섯갈래로 갈라졌고 詩가 毛詩, 齊, 魯, 韓詩로 갈라졌고, 周易도 數家로 갈라져서 學問의 體系가 무너졌다. 뿐만 아니라 楚·燕·齊·韓·魏·趙 등의 縱橫兩論이 深刻히 擡頭되었던 社會的 風潮였으니 만큼 雪上加霜 春秋·詩·易의 眞僞가 論難되었고, 諸子의 紛然한 殺亂에서 焚書坑儒에까지 몰아쳤던 事實[3]들이 「七略」의 必要性을 더욱 채찍질했던 것이다. 漢이 일어서자 秦의 腐敗政治도 改革되고 大大的으로 書籍을 蒐集하기 위해서 獻書의 길을 터 놓고 孝武帝時에 미쳐 책이 缺하고 책장이 빠졌고, 禮가 무너지고, 樂이 崩壞되어 孝武帝가 이를 悲痛히 여겨 秘府書의 整理를 着手케 했다. 書寫官을 두고 諸子의 記錄까지 秘府에 保管하였으니 이 時期는 整理를 위한 準備期라고 해도 無妨할 것이다. 成帝時에 이르러서는 책이 자못 散亡해서 謁者인 陳農을 시켜 遺失된 책을 天下에서 求하게 했으니[4] 이것이 本格的인 整理作業의 시작이었다. 典籍이 蒐集되자 光祿大夫 劉向을 시켜서 經傳과 諸子·詩賦를 校케 하고, 步兵校尉 任宏을 시켜서 兵書를 校케 하고 太史令 尹咸을 시켜서 占卜書(數術)를 校케하고, 侍醫 李柱國을 시켜서 醫書(方技)를 校케 한 것[5]이다.

여기서의 問題는 '校'의 槪念이다. '校'가 果然 무엇을 뜻하고 있을 것인가. 單純한 字句의 校正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그 作業過程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秘府書의 整理過程[6]

| 第1段階(資料蒐集) | 第2段階(校正) | 第3段階(校勘) | 第4段階(?) | 第5段階(分類編目) |
|---|---|---|---|---|
| 여러책을 備置 | 脫誤를 訂正 | 重複을 除去<br>篇目을 區分<br>書名을 부침<br>篇次를 識別<br>內外篇을 分析 | 刊改 | 分類·編目 |

(3) 孔子께서 下世하시자 奧妙한 뜻이 끊어지고 七十弟子가 죽자 大義가 무너져 春秋는 左氏, 公羊, 穀梁, 鄒氏, 夾氏 등 다섯갈래로 갈라지고 詩는 毛詩, 齊詩, 魯詩, 韓詩 등 넷으로 나누어졌는가 하면 易도 또한 數家의 傳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後 楚, 燕, 齊, 韓, 魏, 趙가 서로 秦을 滅하는가 섬기는가 하는 縱橫兩論이 紛紛 했으며 秦에 이르자 이를 근심하여 焚書坑儒가 일어났다.《*loc. cit.*》

(4) 註2 參照

(5) 이 作業은 成帝의 命에 따라 光祿大夫 劉向, 任宏, 尹咸, 李柱國 등이 秘府書를 整理했는데 그 때의 管子書 對備의 境遇만 보더라도 大中大夫卜圭書와 富參書와 射聲校尉立書, 太史書와 中外書를 備置해 놓고 對校한 바 있다.《*loc. cit.* 許世瑛 編著, 中國目錄學史,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民國 43, p. 6.》

(6) 元和의 孫德謙은 劉向의 校讐方法 23種을 밝힌 바 있다.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備衆本, 訂脫誤, 刪複重, 條編目, 定書名, 謹編次, 析內外, 待刊改, 分部類, 辨異同, 通學術, 叙源流, 究得失, 撮指意, 撰序叙, 述疑似, 準經義, 徵史傳, 闢舊說, 增佚文, 攷師承, 紀圖卷, 存別義.《蔣元卿 著, 校讐學史,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 58, p. 35》

| 第 6 段階(源流考察) | 第 7 段階 | 第 8 段階(體系化) | 第 9 段階(存續) |
|---|---|---|---|
| 學派의 異同을 區別 | 그 뜻을 拔萃 | 經義를 決定 | 佚文을 增補 |
| 學術의 源流를一瞥 | 序叙를 記述 | 史傳을 考證 | 師承을 考證 |
| 源流를 叙述 | 疑似를 記述 | 舊說을 開闢 | 圖卷을 記錄 |
| 得失을 考究 | | | 別義를 記述 |

資料를 蒐集해서 校正을 하고 重複을 除去한 뒤 篇目을 區分해 놓고 書名을 부친 다음 目次를 定하고 內篇과 外篇을 區分한 다음 分類와 編目을 거쳐 書目을 作業해 놓고 學派를 識別하고 學問의 源流를 敍述하되, 個個의 資料에 대한 解題作業을 거친 뒤에 그 提要를 拔萃, 學問의 體系를 이룬 然後에 存疑部分에 대한 補充과 留意點을 指摘해 둔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이와 같은 事實이 首肯된다면 '校'는 確實히 深奧하고 緻密한 作業過程을 거쳐 이루어진 것임이 分明하다.

이러한 作業이 끝나자 그 매마다 劉向은 成帝에게 作業過程과 그 結果를 일일이 奏했던 것이다. 一代에 秘府書 全體를 다 整理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듯 하다. 따라서 劉向이 죽은 뒤에 아들 侍中 奉車都尉 歆을 시켜 父業을 마치게 했다[7]는 記錄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劉向의 作業을 그대로 傳承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단 다른 作業으로 移行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도 確實한 記錄이 없다. 다만 "父業을 마치게 했다"[8]는 記錄만으로는 그 全貌를 알 수 없으나 劉歆만이 單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溫室에서 天祿閣으로 資料를 옮길 때의 作業이었으니 分類와 編目의 作業에 不過했지 않았을까. 輯略,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數術略, 方技略 등 七略을 만들어 奏했다고 하였으니 그 以前의 向의 「別錄」이 또한 傳해지고 있지 않는 限, 歆의 勞作의 限界는 確實치 않다. 그러나 「漢志」에 分明히 "今刪其要, 以備篇籍"[9]이란 語句가 보이고 있다. 이것은 「七略」의 要約이 곧 「漢志」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점 역시 要約뿐일까. 「漢志」가 「七略」의 縮少이거나 要約이라고는 全的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漢志」는 비록 「七略」의 體裁를 模倣했을지라도 같지 않은 部分이 있다. 가장 틀리는 곳은 「七略」에는 「輯略」이 있으나, 「漢志」에는 없는 것이다.[10] 그뿐만 아니라 體裁와 類의 歸趣마저도 틀리는 곳이 많다. 「漢志」序에는 "지금 그 要點을 깎아다가 篇을 갖추었다"[11]하였고 顏師古의 註에는 繁雜한 것을 깎아서 그 要點만을 取했다"[12]고 하였으니 「漢志」가 「七略」과 틀리는 것임은

(7) 劉向이 죽자 哀帝는 劉向의 아들 侍中 奉車都尉 劉歆을 시켜 父業을 마치게 했다. 《班固撰, 顏師古注, *op. cit.* p. 285. 段上》
(8) *loc. cit.*
(9) *loc. cit.*
(10) 原來 輯略이 있어야 할 位置는 六藝略 앞일 것이나 이 位置에는 班固가 七略을 要略해서 編籍을 가추었다는 前言이 있을뿐 輯略은 없다.《*loc. cit.*》
(11) *loc. cit.*
(12) 師古曰 : 刪去浮冗, 取其指要也. (*loc. cit.*)

確實하다. 「隋書經籍志考證」을 보면 그 틀리는 點이 네가지 있다.

表 2. 「七略」과 「漢志」의 差[13]

| | 七 略 | 漢 志 | 問 題 書 |
|---|---|---|---|
| 1. 差: | 「詩」는 情을 말하니 情은 信의 符合이오, 「書」는 決斷으로서, 決斷은 心의 證據이다. (初學記 文部御覽學部) | 「詩」는 正言으로서 義에서 나온 것이요, 「春秋」는 決斷하는 것으로서 信의 符合이다. (漢志 p. 20. 六藝略 總序) | 詩, 書, 春秋 |
| 2. 簡略: | 校讎한 中書省의 「易傳淮南, 九師道訓」은 重複된 것을 빼내고, 20篇으로 만들었다. 淮南王은 易을 잘하는 사람 아홉을 맞아다가 그들을 따라서 周易知識을 얻었다. 그러므로 中書에는 「淮南九師言」이라 했다. (淮南道訓二篇別錄) | 淮南王安이 易에 밝은 者 9人을 招聘해서 「九師說」이라 불렀다. (漢志, p. 3. 六藝略. 淮南道訓 二篇注) | 淮南道訓 |
| | 鄒衍의 말은 五德(金木水火土)을 終始함으로써 天地가 넓고 크며 天事를 모두 말했으므로 「談天」이라 했고, 鄒奭은 鄒衍의 文을 潤色하여 龍文을 雕刻한 것 같으므로 '雕龍'이라 했다. (鄒奭子 12篇, 七略) | 齊人은 '雕龍奭'이라 불렀다. (漢志. p. 29.) | 鄒奭子 |
| 3. 없는것: | 鄒子의 「終始五德」에 "이기지 못하는 바를 좇았고, (水)木은 水를 잇고 金은 木을 잇고, 火는 金을 잇고, 土는 火를 잇는다"(文選註) | 없음 | 鄒子終始 |
| | 琴이란 禁이오, 雅란 正이오, 君子는 正을 지켜 스스로를 禁한다(文選註·長門賦注) | 없음 | 雅琴 |
| | 孝宣帝가 申不害 「君臣篇」을 重히 여겨 黃門郎 張子喬로 그 글자를 校正했다(御覽職官部) | 없음 | 申子 |
| 4. 書名의 差: | 「晏子」「春秋」 7篇(史記)<br>「新語」 2卷, 陸賈撰(七略) | 「晏子」 8篇(漢志 p. 21)<br>「陸賈」 23篇(漢志 p. 23) | 陸賈 |

(13) 章宗源은 그의 著 「隋書經籍志考證」에서 「漢志」의 引用文이 「七略」과 틀리는 例를 들었고, 「七略」보다는 簡單하며 「漢志」에 없는 것이 「七略」에 있었고, 「漢志」의 書名이 「七略」과 틀리는 것이 있으며, 類도 같지 않고, 「七略」에 없는 것은 「漢志」가 새로 넣었다고 여섯가지를 例擧하고 있지만, (蔣元卿 著, *op. cit.* p. 40, 41) 그중에서 類도 같지 않고 「七略」에 없는 것을 새로 넣은 例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以下 削除移動例 參照)

「漢志」는 「七略」것을 그대로 轉載하지 아니한 탓으로 內容이 틀렸고 設使 같은 內容일지라도 매우 要約되었으며, 「七略」에는 있었으나 削除해버린 것도 있고, 書名에도 差異가 있다.

特히 이 밖에도 項目을 깎아버린 例는 더욱 많다. 六藝略에서 '樂 6家, 165篇'이라고 한 곳에 班固가 註하기를 "淮南劉向等이 頌七篇을 깎았다"(14)고 하였다. 이는 本來 劉歆이 지은 「七略」 속에 樂 중 「琴頌淮南劉向等七篇」을 깎았음을 뜻하고, 同 春秋 23家 948篇의 班固의 註를 보면 "太史公 4篇을 깎았다"(15)고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七略」속에 있는 六藝略春秋太史公 134篇 중에서 4篇을 깎았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漢志」에 收錄된 春秋 중 "太史公 130篇"(16)의 數値는 이미 깎아진 數値인 것이다. 어떻든 班固는 自己의 著書 「漢志」를 엮으면서 「七略」것을 六藝略에서 11篇을 깎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뿐만 아니다.

略間의 重出한 것을 削除한 것도 있다.

> 省伊尹, 太公, 管子, 孫卿子, 鶡冠子, 蘇子, 蒯通, 陸賈, 淮南王, 二百五十九種, 出司馬法入禮也, 省墨子, 重入蹴鞠也.(17)

「七略」의 各 略間에 同一書가 重出된 것을 깎아 버린 것도 있다. 篇數는 都合 259種이지만, 諸子略의 諸家의 書目과 兵書略의 諸家의 書目을 對比해 보면 그 篇數가 259篇을 훨씬 넘는 292篇(種)이 되고 있다. 이의 推算을 表로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 重出을 削除해 버린 例

| 存續 | | 削除(19) | |
|---|---|---|---|
| 諸子略 儒家 孫卿子 | 33篇 | 兵書略 兵權謀 孫卿子 | 33 篇 |
| 諸子略 儒家 陸賈 | 23篇 | 兵書略 兵權謀 陸賈 | 23 篇 |
| 諸子略 道家 伊尹 | 51篇 | 兵書略 兵權謀 伊尹 | 51 篇 |
| 諸子略 道家 太公 | 237篇(18) | 兵書略 兵權謀 太公 | 237篇 |
| 諸子略 道家 管子 | 86篇 | 兵書略 兵權謀 管子 | 86篇 |
| 諸子略 道家 鶡冠子 | 1篇 | 兵書略 兵權謀 鶡冠子 | 1篇 |
| 諸子略 墨家 墨子 | 71篇 | 兵書略 兵技巧 墨子 | 71篇(兵書略. 兵技巧 蹴鞠 25篇) |
| 諸子略 縱橫家 蘇子 | 31篇 | | |
| 諸子略 縱橫家 蒯子 | 5篇 | 兵書略 兵權謀 蘇子 | 31篇 |
| 諸子略 雜家 淮南王內篇 | 21篇 | 兵書略 兵權謀 蒯子 | 5篇 |
| 諸子略 雜家 淮南王外篇 | 33篇 (以上 592篇) | 兵書略 兵權謀 淮南王 | 54篇(以上 592篇) |

(14) 出淮南, 劉向等 琴頌七篇.(班固撰, 顏師古註, *op. cit.* p.286. 段中.)
(15, 16) *ibid*, p.287. 段中.
(17) *ibid.* p.293下)
(18) 呂望爲周師尙父, 本有道者, 或有近世, 又以爲太史公術者, 所增加也. 謀 81篇, 言 71篇, 兵 85篇《*ibid.* p.289 段上》
(19) 省10家 271篇《*ibid.* p.293, 段下》重入蹴鞠 1家 25篇, 出司馬法 155篇, 入禮也. 劉奉世曰 : 此注

兵書略 兵技巧의 「墨子」 72篇을 깎아 버렸다[20]고는 하나 實은 同一書目중에 '重入蹴鞠'[21]이라 했으니 다시금 넣은 것으로 解釋된다. 顔師古의 註를 보면 이것은 兵法의 技術에 該當되는 册도 있으므로 墨子 중에서 兵書略 兵技巧에 該當되는 蹴鞠 25篇[22]만을 다시금 收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數値의 差가 있는 것은 이미 劉奉世의 指摘처럼 兵書略 權謀 259篇이나 兵書略 53家 790篇중의 「七略」의 原文아래에 註한 班固의 '省十家二百七十一篇'의 數値를 對比해 보면 不足하니 이는 誤謬[23]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259篇보다 333篇이 많은 592篇이 깎여진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兵技巧에 '蹴鞠 25篇의 收錄을 보면 깎여진 原數는 467篇[24]인 셈이다. 이는 先學의 指摘처럼 "옛 사람들의 重視한 家法을 無視한 記錄이어서 後世에 家法이 무너진 것[25]이므로 班固의 큰 汚點이라 하겠다. 以上은 重出을 削除해버린 實例이거니와 이와는 正反對로 「七略」에 全혀 없는 것을 班固가 「漢志」에 새로 넣은 것도 있다.

**表 4.** 「七略」에 없는 것을 새로 넣은것

入劉向稽疑一篇, 師古曰, 此凡言入者, 謂七略文外, 班氏新入之也. 其云者, 與此同[26]
入楊雄杜林二家三篇[27]
入楊雄一家, 三十八篇[28]
入楊雄八篇[29]

「漢志」 六藝略 "書九家四百一十二篇"[30]下의 班固의 註를 보면 "劉向稽疑一篇을 넣는다" 했는데 顔師古의 註를 보면 이 "넣었다"는 말은 「七略」 以外에 班固自身이 새로 넣었다"는 말로서 이는 劉向의 著 「七略」속에 있었던 '書'의 書目 중 「劉向五行傳」 10卷을 班固가 「稽疑」 一篇을 새로 넣어 '劉向五行傳記十一卷'으로 한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또한 六藝略 중 小學 10家 45篇下 班固의 註에 "入揚雄杜林二家三篇[31]이라 함은 班固가 「漢志」를 만들 때에 「七略」에 없는 「楊雄蒼頡訓纂」篇과 「杜林蒼頡訓纂」[32] 1篇 등 3篇을 새로 넣은 것으로서 解釋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六藝略에서 都合 4篇을 넣은 것이 된다. 또한 諸子略 儒 53家 836篇下의 班固의 註를 보면 "入楊雄一家三十八篇"[33]이라 함은 同 書目 중에 「楊雄所序」 38篇을 말하는 것이었고, 또한 詩賦略 106家 1318篇下에 班固가 註한 '入楊雄八篇'[34]이라 함

---

271 又 當作 592, 兩注篇皆不足, 蓋訛謬也《*loc. cit.*》
(20~23) 《*loc. cit.*》
(24) 表3, 參照.
(25) 自班固, 並省部次, 而後人, 不復知有家法《章學誠, 校讐通義, 互著篇 參照》
(26) 班固 撰, 顔師古 注, *ibid.* p. 285. 下.
(27) *ibid.* p. 287. 下.
(28) *ibid.* p. 289. 上.
(29) *ibid.* p. 292. 上.
(30) 章學誠 著, *op. cit.*
(31~32) 班固撰, 顔師古注, *op.cit.* p. 287. 段下.
(33~34) *ibid.* p. 289. 段上.

은 本來 있었던 '楊雄賦 4篇'에 8篇을 더 넣어 '楊雄賦 12篇'[35]으로 만든 것으로 解釋된다. 이와 같이 보면 班固는 「漢志」를 만들때에 「七略」에 없는 것을 새로 넣은 것으로서 이것은 「七略」 著作 以後에 劉向이 지은 自身의 著述을 비롯하여 楊雄杜林의 著述을 蒐集하여 「七略」을 補充한 것 같다. 이와 같이 「七略」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넣었는가 하면 「七略」것을 移動시킨 것도 있다.

表 5. 「七略」것을 移動시킨 例

出司馬法入禮也[36]
入司馬法一家百五十五篇[37]

「漢志」 兵書略 兵權謀 13家 259篇下에 있는 班固의 註를 보면 '出司馬法入禮'라 하여 놓고, 六藝略, 禮, 13家 555 篇下에는 '入司馬法 一家 155篇'이라 하였으니 「七略」에 있었든 兵書略 兵權謀 司馬法 155篇을 「漢志」를 著作할 때 「漢志」 六藝略 禮에 이를 옮겨 놓은 것으로서 同 書目중의 "軍禮司馬法 百五十五篇"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班固 自身은 「漢志」를 만들때에 단 1件이지만 兵書略에 있었든 것을 禮에 옮겨 넣은 것이다.

이와 같이 「七略」과 「漢志」間에는 그 性格을 같이 하면서도 些少한 差가 있다.

表 6. 「七略」과 「漢志」와의 關係

七略것 削除 11篇(六藝略, 春秋, 4篇,[38] 樂 7篇[39])
重出分 削除 467篇(兵書略, 兵權謀, 521篇[40], 兵技巧 71篇[41])
七略에없는 것을 新入 50篇(六藝略, 書1篇[42], 小學 3篇,[43] 諸子略, 儒家 38篇,[44] 詩賦略, 陸賈賦 12篇[45])
七略것을 移動 155篇(七略 兵權謀→禮[46])

이를 綜合해 보면 「漢志」를 만들 때에 「七略」것을 削除한 것이 11篇, 「七略」에 列擧된 項目이 重出되었다고하여 削除해 버린 것이 467篇, 「七略」에 없는 것을 班固 自身이 「漢志」에 새로 넣은 것이 50篇이며, 兵權謀의 것이 內容上 禮에 該當된다고 하여 「七略」것을 移動시

(35) *ibid.* p. 292. 段下.
(36) *ibid.* p. 293. 段上.
(37) *ibid.* p. 286. 段中.
(38) 省太史公四篇, 《*ibid.* p. 287 段上》
(39) 出淮南劉向等琴頌七編, 《*ibid.* p. 286 段中》
(40) 劉奉世曰 : 種當作重, 九下, 又脫一篇字, 註 259. 恐合作 521篇, 數已在前《*ibid.* p. 293. 段上》.
(41) '省墨子'라함은 墨子 71篇이 있으므로 兵技巧에 나온 墨子 71篇을 削한 것임《*ibid.* p. 293. 段下》
(42) 入劉向稽類一篇. 《*ibid.* p. 285. 段下》
(43) 入楊雄杜林二家三篇. 《ibid. p. 287. 段下》
(44) 入楊雄一家 38篇《*ibid.* p. 289. 段上》
(45) 入楊雄八篇. 《*ibid.* p. 292. 段上》
(46) 省伊尹, 太公, 管子, 孫卿子, 鶡冠子, 蘇子, 蒯通, 陸賈, 淮南王, 259種, 出司馬法入禮也. 《*ibid.* p. 293. 段上》

킨 것이 155篇이 된다.

그러나 「漢志」의 書目末에 集計된 '家'와 '篇'을 보면 書目의 數와 一致되지 않고 있다.

表 7. 「漢志」에 揭載된 家篇數[47]와 實數

| | 記錄 | | | 實數 | | |
|---|---|---|---|---|---|---|
| 略別 | 家流 | 家 | 記錄數 | 篇 | 卷數 | 差 |
| 六藝 | 易[48] | 13 | 294 | 270 | | −24 |
| | 書[49] | 9 | 412 | 186 | 175 | −51 |
| | 詩 | 6 | 416 | | 359 | −57 |
| | 禮 | 13 | 555 | 415 | 56 | −48 |
| | 樂 | 6 | 165 | 165 | | 0 |
| | 春秋[50] | 23 | 948 | 615 | 275 | −58 |
| | 論語 | 12 | 229 | 198 | 32 | +1 |
| | 孝經 | 11 | 59 | 55 | 4 | 0 |
| | 小學[51] | 10 | 45 | 45 | | |
| | 計 | 103 | 3,123 | 1,985 | 90 | 237 |
| 諸子 | 儒 | 53 | 836 | 847 | 0 | +11 |
| | 道 | 37 | 993 | 1,048 | 0 | +55 |
| | 陰陽 | 21 | 369 | 368 | 0 | −1 |
| | 法 | 10 | 217 | 217 | 0 | 0 |
| | 名 | 7 | 36 | 36 | 0 | 0 |
| | 墨 | 6 | 86 | 86 | 0 | 0 |
| | 縱橫 | 12 | 107 | 107 | 0 | 0 |
| | 雜 | 20 | 403 | 393 | 0 | −10 |
| | 農 | 9 | 114 | 114 | 0 | 0 |
| | 小說 | 15 | 1,380 | 1,390 | 0 | +10 |
| | 計 | 189 | 4,541 | 2,606 | 0 | +65 |
| 詩賦(屈原) | 賦 | 20 | 361 | 361 | 0 | 0 |
| (陸賈) | 賦 | 21 | 274 | 275 | 0 | +1 |
| (孫卿) | 賦 | 25 | 136 | 136 | 0 | 0 |

(47) *ibid.* p. 285～p. 297. 이것은 書目末에 收錄된 家와 篇과 各 書目에 나타난 家와 篇數를 對比, 그 差를 集計한 것이다.

(48) 易 중 經 29卷이라 하여 놓고 그를 註하여 "大小夏侯二家 歐陽經 32卷"이라 하고 있다. 顔師古는 이를 29卷이라 하였으며 伏生이 傳授한 것《*ibid.* p. 285. 段中》이라 하고 있다.

(49) 書 중 尙書古文經은 46卷 57篇으로 되어 있다. 顔師古는 이를 註하여 孔安國書 序에는 王의 命으로 傳을 지을때 "59篇 46卷으로 하였는데 鄭玄의 叙贊에는 이들 1篇이 없어졌으니 57篇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ibid.* p. 285. 段中》

(50) 책이 적어서 한 類로 이를 수 없는 것은 性質이 類似한 곳에 넣었다 한다.《許世瑛編著, *op. cit.* p. 22.》

(51) 小學 10家 45篇 중에 「八體六技」란 書名이 보이는데, 이것은 篇數가 적혀져 있지 않으므로 對比할 수 없다. 따라서 差는 알 수 없는 것이다. 韋昭는 八體를 大篆, 小篆, 刻符, 蟲書, 摹印, 署, 殳書, 隸書라고 하고 있다.《班固撰, 顔師古註, *op. cit.* p. 287. 段下.》

| | | | | | | |
|---|---|---|---|---|---|---|
| | 雜賦 | 12 | 233 | 233 | 0 | 0 |
| | 歌詩 | 28 | 314 | 316 | 0 | +2 |
| | 計 | 106 | 1,318 | 1,321 | 0 | +3 |
| 兵書 | 兵權謀 | 13 | 259 | 272 | 0 | +13(圖13卷)+13 |
| | 兵形勢 | 11 圖18 | 92 | 102 | 0 | +10(圖21卷)+3 |
| | 陰陽 | 16 圖10 | 249 | 227 | 0 | −22(圖10卷) 0 |
| | 兵技巧 | 13 | 199 | 202 | 5 | + 8(圖3卷)+ 3 |
| | 計 | 53 圖28 | 799 | 803 | 5 | + 9(圖 47)+19 |
| 數術 | 天文 | 21 | 445 | 41 | 378 | −26 |
| | 曆譜 | 18 | 606 | 566 | | |
| | 五行 | 31 | 652 | | 653 | +1 |
| | 著龜 | 15 | 401 | 478 | 0 8具 | +85 |
| | 雜占 | 18 | 313 | 0 | 312 | −1 |
| | 形法[52] | 6 | 102 | 109 | 13 8具 | 019 |
| | 計 | 109 | 2,533 | 1.194 | 1,356 | −27 |
| 方技 | 醫經 | 7 | 216 | 0 | 175 | −41 |
| | 經方 | 11 | 274 | | 191 | +5 |
| | 神僊 | 10 | 205 | | 201 | −4 |
| | 計 | 36 | 868 | | 862 | −19 |

이러한 數差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原來 劉歆이 溫室의 책을 天祿閣에 옮겨 만든 書目의 集計가 錯誤일까 班固가 「七略」을 增削하여 「漢志」를 엮을 때의 錯誤였을까, 이에 대하여는 顏師古도 이미 指摘해 둔 바와 같이 家와 篇數가 틀리는 것은 轉寫할 때의 錯誤일까 年代가 너무 오랜 탓일까 역시 疑問이다.[53] 根據를 찾을 實物은 勿論 記錄조차도 없으니 檢討의 對象이 될 뿐이다. 要컨대 「七略」에는 있었으나 全혀 削除해버렸고, 書名도 差가 있고 項目을 밝혀 놓고 새로 넣고 하였으니 硏究의 餘地 多分히 있다.

그러나 하나 操心스러운 것은 「別錄」과 「七略」이 唐(唐太宗 元年 627)時까지 있었으나 宋(宋太祖 元年 960)時에 이르러 없어졌다가 淸代에 와서 散佚된 몇 篇이 있을 뿐[54]이었으니 實物이 傳해지지 아니한 오늘 그의 對比는 不可能하다. 다만 그래도 「漢志」를 精讀해 보면 「七略」과의 關係가 적지않게 나타나며, 「漢志」自體에서도 적지않은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 Ⅱ. 書目에 나타난 「漢志」의 性格

### A. 勞作者 :

「前漢書」 卷30의 卷頭題署를 보면 '漢蘭臺令史 班固 撰 唐正義大夫行秘書監琅邪縣開國子顏

(52) 形法은 地理, 相面, 相刀, 相六畜의 書는 1種으로 되어 있다. 《許世瑛 篇著, *op. cit.* p. 29.》
(53) 劉歆이 溫室에서 天祿閣으로 藏書를 옮길 때의 藏書整理事項은 許世瑛이 比較的 仔細히 밝히

師古注'[55]라 하여 撰者는 班固요, 註者가 顔師古라는 것만을 볼때 「漢志」의 勞作者는 단둘인 줄 알기 쉽다. 그러나 實上 記錄上 項目에 나타난 註者는 臣泌[56], 臣瓚[57], 漢官[58], 蘇氏[59] 등 4者의 未詳分을 除外하고서도 12名이나 보이고 있다. 그 實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8. 「漢志」各項의 註者

| | | | | | |
|---|---|---|---|---|---|
| 班　固[60] | 後　漢 | 明帝 1～ 8( 58～ 75) | 著作郎, 秘書省典籍典校 | 漢書・白虎通 |
| 服　虔[61] | 後　漢 | 靈帝 1～21(108～189) | 九江太守 | 春秋左氏傳解・易服氏註 |
| 應　劭[62] | 後　漢 | 獻帝 1～19(190～219) | 泰山太守, 袁紹軍校尉 | 漢軍儀, 禮儀故事, 風俗通 |
| 如　淳[63] | 三國魏 | (220～265) | 陳邵丞 | 漢書注 |
| 蘇　林[64] | 三國魏 | (220～265) | 五官, 博士, 給事中, 安城亭侯 散騎常侍 | 書傳解釋 |
| 張　晏[65] | 三國魏 | (220～265) | | 漢書音釋 40卷 |
| 孟　康[66] | 三國魏 | 明帝 1～30(227～257) | 散騎侍郎, 弘農守, 中書監, 廣陵亭侯 | 漢書註 |
| 韋　昭[67] | 三國吳 | (264～280) | 太子中庶子, 侍中 | 博奕論, 孝經註, 論語註, 洞記, 官職訓, 辨釋名, 國語註 |
| 晉　灼[68] | 晉 | (265～316) | 尙書郎 | 漢書音義 |
| 顔師古[69] | 唐 | 高祖 1～ 9(618～626) | 朝散大夫, 中書舍人, 中書侍郎 琅邪監長, 秘學監, 弘文館學士 | 五經文字校正, 五禮纘, 漢書註, 匡謬正俗 |
| 宋　祁[70] | 宋 | 仁宗 1～50(1017～1067) | 史官修撰, 亳州知事, 左丞, 工夫尙書, 翰林學士丞旨 | 唐書修撰, 宋景文集, 益部方物略 |
| 劉　敞[71] | 宋 | 仁宗 1～50(1017～1067) | 右正言, 知制誥, 集賢院學士, 判書史臺 | 春秋權衡, 春秋傳, 春秋意林事記 |
| 劉奉世[72] | 宋 | 哲宗 1～14(1086～1100) | 僉書樞密院事, 端明殿學士 | |

朝代, 官職, 著作은 藏勵龢等編, 中國人名大辭典(臺北, 商務印書館, 民國10)의 內容을 拔萃한 것임.

---

고 있다.《*ibid.* p. 19》顔師古曰 : 其每略所條, 家及篇數, 有與總凡不同者, 傳寫脫誤, 年代久遠, 無以詳知《班固 撰, 顔師古 註, *op. cit.* p. 285. 上.

(54) 別錄七略, 唐時猶存, 洎宋而亡, 淸代由各家的搜輯, 僅有兵賽之餘的幾篇叙錄等而已. 至七略的體裁, 其一部分留傳至現在, 所籍以考見者, 只有班氏所編的漢書藝文志一書. 是班氏又可稱爲二劉的功臣.《蔣元卿 著, 校讐學史, 臺灣, 商務印書館, 民國 58, p. 39》

(55) 班固 撰, 顔師古 注, *op. cit.* p. 285. 段上.

(56) *ibid.* 方技略, 神仙 總序 p. 296. 段中.

(57) *ibid.* 六藝略, 禮, 小序, p. 287. 段下.

(58) *ibid.* 六藝略 禮, 曲臺后倉, p. 286. 段上.

(59) *ibid.* 六藝略, 易, 京氏段嘉, p. 285. 段中.

(60) *ibid.* p. 285. 段上. 卷頭題署.

(61) *ibid.* p. 285. 段上. 六藝略. 易.

(62) *ibid.* p. 285. 段下. 六藝略. 詩. 詩經.

(63) *ibid.* p. 285. 段下. 六藝略.

(64) *ibid.* p. 288. 段中. 六藝略. 總序.

(65) *ibid.* p. 287. 段中. 六藝略. 孝經, 爾雅.

(66) *ibid.* p. 285. 段中. 六藝略. 易. 小序.

(67) *ibid.* p. 285. 段上. 藝文志. 序.

(68) *ibid.* p. 293. 段中. 兵書略. 陰陽家. 鶡冶子.

(69) *ibid.* p. 285. 段上. 卷頭題署. 註者.

(70) *ibid.* p. 286. 段上. 六藝書. 書. 小序.

(71) *ibid.* p. 286. 段中. 六藝略. 禮. 小序.

(72) *ibid.* p. 293. 段上. 兵書略. 兵權謀. 總家編.

漢의 成帝가 命을 내려서 遺書를 求한 時期는 西紀前 26年, 그 後 不過 百年에 班固가 「漢志」를 만들었고, 顔師古가 註를 내기까지의 人物을 보면 이들은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職位가 매우 높았으며 文閥 등 또한 只今의 官吏職에 比해 으뜸급에 屬하는 學官들이었다. 著述을 보아도 主題가 뚜렷하고 斯界의 碩學이 아니고서는 到底히 생각치 못할 博識者였다. 따라서 그 專門性은 말할것도 없고 解, 註, 音釋, 論, 校正 등의 著述이 學界의 支柱가 되었으며 讀者에게 寄與될 그 背景과 業績이 實로 燦然했다.

「漢志」의 著者인 班固의 경우만 보더라도 後漢時代의 班彪의 아들이요, 9歲時에 이미 著述이 있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典籍을 涉獵, 明帝가 이를 寄特히 여겨 著作郎을 삼아 秘府에 있는 典籍을 典校시키었다. 아버지의 著述인 「漢書」를 이어서 20餘年동안 努力하여 建初에 이르러 이를 大成했다. 當世에 그 책을 甚히 重히 여겼으며 玄武司馬에 옮겨서는 明帝가 諸儒들을 모아놓고 五經을 講論하고, 「白虎通德論」을 짓게 하였다. 그때에 明帝가 班固를 시켜서 이 일을 撰集케 했다. 註者 중에서도 몇 사람을 보면

服虔의 경우 : 後漢의 滎陽人으로서 젊었을때에 太學에 入學하여 著述을 하였는데 이 역시 훌륭했다. 「春秋左傳」을 지었고, 左傳을 가지고 何休가 論駁한 漢事 60餘條를 다시금 論駁한 碩學. 처음에는 鄭玄이 春秋를 註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차에, 偶然히 服虔을 만나서 客舍에 머무를 때, 服虔이 수레위에서 第3者와 自己의 註를 말하는 것을 鄭玄이 듣고 討論한 後 服虔註를 받아 「服氏註」라 이름을 지은 事實.

應邵의 境遇 : 젊어서 學問에 篤實하여 典籍을 많이 보았으며 孝廉에 及第, 獻帝의 부름을 받아 없어진 옛날 文書(舊章)를 復元하기 위하여 民間人의 傳聞을 資料로 하여 「漢官儀」와 「禮儀故事」 및 「風俗通」을 지어 物類名號를 가려내서 解釋한 事實.

韋昭의 境遇 : 일찌기 王命을 받아 「博奕論」을 지어 稱讚을 받았고, 吳王 孫皓가 서자 侍中이 되어 「國史」를 지었으며 「孝經」 「論語註」 「洞記」 「官職訓」 「辨釋名」 「國語註」 등도 지었고, 顔師古 역시 訓古學에 밝았으며 일찍이 秘府에서 詔書를 받아 五經文字를 考證하여 많은 곳을 校正했다. 또한 「五經」도 撰述하였으며 太子 承乾을 위하여 「漢書」를 註할때 班固의 忠臣이라 일컬어졌다.

劉敞도 本來 山川의 道徑과 異獸의 形象을 잘 알아서 遼人들이 이를 嘆服했으며 集賢院學士에서 御史臺로 옮겼는데 敞의 學問의 그 深奧性과 文章의 贍富는 稱頌이 藉藉했다. 그의 「草制」는 主 9人을 追封하는 일이었는데, 即席에서 九制를 이루었다. 歐陽修와 같은 碩學도 疑問이 있을 때마다 書信으로 質問했으며 그의 博識을 嘆服했다는 事實.

위의 몇가지 事實만 보아도 「漢志」를 撰하였거나 注者를 보면 그 目的이 한결같이 學的이오, 非凡한 能力을 가지고 讀者를 위하여 目錄의 闕과 不記部分을 애써 註記한 것을 보면 現時의 機械的인 處理로 끝내는 司書의 役割과는 달리 學的 推究가 中心인데서 그 職位도 名實 그대로 자못 높은 目錄者들이다.

**B. 體 裁 :**

첫머리에 班固自身의 序言을 놓고 六略으로 區分, 各略에는 書目을 羅列하고 있다. 그 중의 一例를 보면 易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表 9. 六藝略 중 易의 경우[73]

| | | | | | |
|---|---|---|---|---|---|
| 易經 | 施, 孟, 梁丘 | 漢宣帝 | 甘露 1～ 5 | (BC. 53～ 49) | 施, 孟丘之學 |
| 易傳周氏 | 號. 王孫 | 漢景帝 | 甘露 1～16 | (BC. 156～141) | |
| 服氏 | 號. 服光(服生, 齊) | 漢景帝 | 甘露 1～16 | (BC. 156～141) | |
| 楊氏 | 名. 何叔元 | 漢景帝 | 甘露 1～16 | (BC. 156～141) | |
| 蔡公 | 周王孫 | 漢景帝 | 甘露 1～16 | (BC. 156～141) | |
| 韓氏 | 韓嬰 | 漢文帝 | 1～22 | (BC. 179～157) | |
| 王氏 | 王同 | 漢景帝 | 1～16 | (BC. 156～141) | |
| 丁氏 | 子寬 | 漢景帝 | 1～16 | (BC. 156～141) | |
| 淮南道訓 | 淮南王 劉安 | 漢武帝 | | (BC. 140～ 87) | |
| 古雜 | | | | | |
| 雜災異 | | | | | |
| 神輸 | | | | | |
| 孟氏京房 | | | | | |
| 災異孟氏京房 | | | | | 士孫鄧衡之學 |
| 五鹿充宗略說 | | | | | |
| 京氏段嘉 | 京房의 스승, 段嘉 | 漢武帝 | | | 京氏之學 |
| 章句施孟丘氏 | | | | | |

朝代는 藏勵龢 等編, 中國人名辭典,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10)을 媒介, 年表를 찾아 밝혔음)

위의 表에서 實感나는 것은 各略에서 書名 篇數 撰人 或은 家 註解 등을 記入하고 있는 點이다.

첫째, 書目의 體裁 : 마치 現下의 skeleton card form에서 標目을 除外하고 bady of entry의 形式처럼 羅列하고 있으나 版次 出版者 面數 插畫 크기 叢書事項은 없다.[74] 얼른 보아서 細分된 感이 缺如된듯하다. 이것은 現代의 資料와 그 性格이 틀리는데 緣由된 것이 아닌가 한다. 實은 漢代의 秘府書란 大部分이 雕板 以前의 資料여서 그런 明記란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換言하면 甲骨 彝器 竹帛 金版 石刻 石鼓 簡策 傳搨 卷子 葉子[75]등의 特殊資料임은 勿論, 當代 훨씬 以前의 資料들까지 包括된 것으로 본다면 그의 分析이 容易하지 않음은 勿論이다. 더욱이 「漢志」는 「七略」을 要約[76]한 것이라고 본다면 「七略」에 이미 있

(73) *ibid.* p. 285. 段上中. 六藝略. 易.
(74) *ibid.* p. 285. 段上. 例 : 易經 12篇. 施孟梁丘三家. 顏師古曰 下經及十翼, 故十三篇.
(75) 羅錦堂 著, 歷代圖書板本志要. 臺北, 中華叢書委員會, 民國 47. p. 1-23.
(76) 註10 參看.

었던 記入體의 諸事項을 繁雜하다 해서 削除한 것이 아닌가 하나 그 資料自體가 이와 같은 事項이 究明되기 매우 어려운 一面이 있고, 다른 面으로는 列擧된 書目의 忠實보다 學術의 淵源을 어떻게 하면 잘 밝힐 수 있을 것인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記入體의 詳述을 期待하기는 事實上 어려운 問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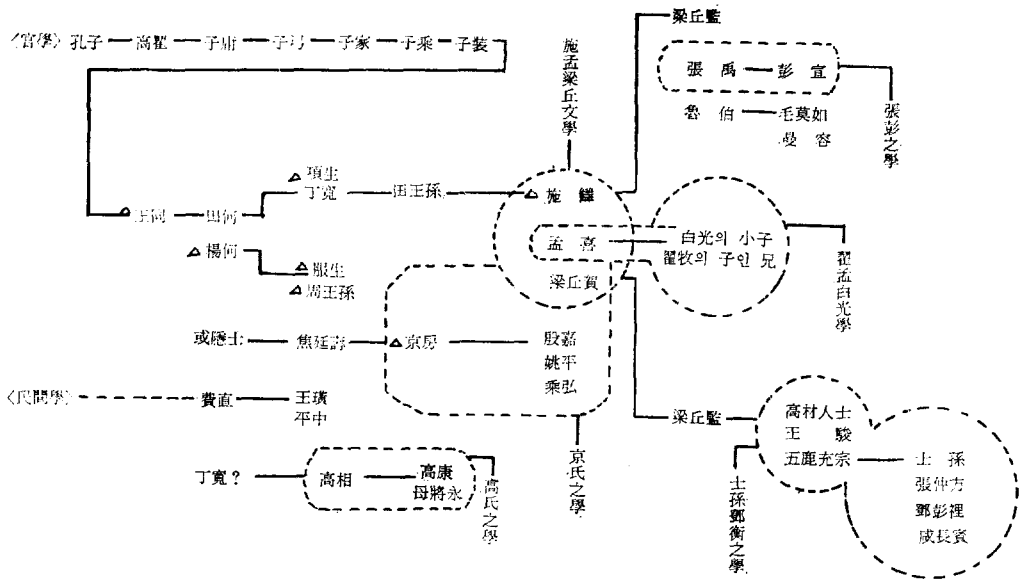
둘째, 時代別 : 書目은 時代別로 보면 韓嬰의 著述「韓氏」가 가장 이르고[77] 다음이 周王孫의 著述「易傳」, 服光의 著述「服氏」[78], 楊何의 著述「楊氏」[79], 周王孫을 섬기었다는 著者未詳의 著述「蔡公」[80], 劉安의 著述「淮南道訓」,[81] 京房의 스승 段嘉가 지었다는「京氏段嘉」[82], 施·孟·梁丘의 著인「易經」[83]등 順으로 되어야 할 것이나「韓氏」와「淮南道訓」이 中間에 끼어 있어 꼭 時代順이라고는 斷定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를 學派別로 볼 수도 있다. 가장 明確한 것은 施·孟·梁丘가 著述한「易經」을 '施孟梁丘之學'[84]이라고 하였고, 著者未詳의「五鹿充宗略說」을 '士孫鄧衡之學'[85]이라 하였고, 段嘉의 弟子가 지었다는 '京氏段嘉'를 '京氏之學'[86]이라고 한 것이 보이고 있다. 다만 易이 漢代에 어떻게 내려 왔을까「漢書」儒林傳을 보면 傳授狀況이 다음과 같다.(表 10. 參看)

「漢書」儒林傳을 보면 魯의 商瞿子木이 孔子로부터 周易을 배웠고, 魯橋庇 子庸에게 이를 가르쳐 준 다음 子庸이 江東馯臂 子弓에게, 子弓은 燕의 周醜 子家에게, 子家는 東武孫虞子乘에게, 子乘은 齊의 田何 子裝에게, 各各 가르쳐 주었으나 秦이 禁學하는데 이르러 易은 筮卜書로서 禁하지 않았으므로 그 傳授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 뒤 漢이 일어나자 田何가 齊田으로부터 杜陵에 옮기자 號를 杜田生이라 하였고, 東武王 同子中, 洛陽 周王孫, 丁寬, 齊服生들에게 易에 대한 敎訓을 주어 易傳 數篇이 만들어졌고, 同은 淄川楊何(字 : 叔元)에게 이를 주었다 하였으니 易은 田何에게서 나온 것이 分明하다. 田何 以後에 易이 傳授된 狀況을 보면 表10과 같이 田何에게서 받아진 系統은 丁寬→田王子孫→施讎→張禹→彭宣으로 傳해져서 '施孟梁丘之學'과 '張彭之學'을 이루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隱士에게서 焦延壽→京房→梁丘賀→梁丘臨→五鹿充宗→士孫 등 系列로서 傳授되어 '京氏之學'과 '士孫鄧衡之學'을 이루었다.

以上은 官學의 立場에서 보아왔고, 民間學의 立場에서 보면 高相 自身이 自稱 丁寬에게서 高康에게 傳했다는 '高氏之學'이 있고, 傳承未詳分도 또한 있다. 이것을 表9. 六藝略 중 易

(77) 班固 撰. 顔師古 注, *op. cit.* p. 285. 段上. 六藝略. 易. 韓氏.
(78) *ibid.* p. 285. 段上. 六藝略. 易. 服氏.
(79) *loc. cit.* 段上. 六藝略. 易. 楊氏.
(80) *loc. cit.* 段上. 六藝略. 易. 蔡公.
(81) *loc. cit.* 段上. 六藝略. 易. 淮南道訓.
(82) *loc. cit.* 段中. 六藝略. 易. 京氏段嘉.
(83) *loc. cit.* 段上. 六藝略. 易. 易經.
(84) *ibid.* 前漢書. 卷88. 列傳. 儒林. p. 590. 段上. 丁寬.
(85) *ibid.* p. 590. 段下. 梁兵賀.
(86) *loc. cit.* 京房.

表 10. 前漢書 儒林傳을 通해 본 易의 傳授狀況[87]




의 경우와 對比해 보면 未詳分도 或 學派別로 모은듯하고 官學을 앞세우고 民間學을 後置한듯하나, 學派를 論外로 하고 다른 側面에서 본다면 經을 앞세우고 傳記를 그 다음에, 訓詁, 章句順으로 排列했는지는 未詳이다. 그러나 經 以外의 것은 모두 時代順으로 排列하고 있다.

### C. 書名의 構成

六藝略 중에서 易 書 詩 禮 春秋의 書名만을 一瞥해 보면 古代의 編目者들은 書名의 構成을 참으로 多樣하게 했다. 그 實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表 11. 參看)

例를 든 諸 事項을 보면 原經과 註疏를 區分해 놓은 것, 人名을 書名으로 만든 것, 干支를 換算한 것, 師說을 붙인 것, 內容을 보아 붙인 것, 學派로 表示한 것, 章句로 表示한 것, 當該者의 行狀을 따른 것, 誥·誓·號令을 가지고 命名한 것, 論難을 奏한 것, 國名을 앞세운 것, 七十弟子인 記錄, 遺事, 있는 것을 나누어 놓은 것, 世世의 諡號를 딴 것, 時期와 莢謀를 나타낸 것, 後人의 續篇을 나타낸 것 등이다. 書名의 構成은 漢代以前의 資料의 多樣性과 比例해서 一定한 法則이 없는 듯하다. 다만 漢時에 있어서도 內容을 重視했고 資料

(87) *ibid.* p. 589-590. 段下. 參照.

**表 11.** 六藝略에 나타난 書名의 構成

| | | | |
|---|---|---|---|
| 易[88] | 易經 | 本經을 말함 | 原經 |
| | 易傳 | 本經에 注解를 붙인것 | 註疏 |
| | 服氏 | 服光의 姓氏 服을 拔萃 | 人名 |
| | 古五子 | 60甲子중에서 支인 '子'를 다섯個만 것 | 干支 |
| | 淮南道訓 | 淮南王이 易을 잘하는 사람 9人을 불렀다하여 이 師說을 가지고命名 | 師說 |
| | 災墨, 神輸 | 王道를 잃으면 災異가 생기고 얻으면 北海에 祥瑞가 輸入된다고하여 그를 命名 | 內容 |
| | 五鹿充宗略說 | 士孫鄧衛之學의 五鹿充宗說을 中心으로한 學派別學名 | 學派 |
| | 章句 | 學派別로 構成된 章과 句(例 : 施, 孟, 梁丘) | 章句 |
| 書[89] | 劉向五行傳記 | 行狀위에 當該者를 놓아 構成 | 行狀 |
| | 周書 | 周時의 誥·誓·號令을 가지고 命名 | 誥·誓·號令 |
| | 協奏 | 宣帝時의 石渠閣의 論難을 奏했음을 나타낸 것 | 論難 |
| 詩[90] | 魯故 | 國名을 앞세우고 訓傳을 붙인 命名 | 國名 |
| 禮[91] | 記 | 孔子의 七十弟子의 記錄을 가지고 命名 | 弟子 |
| | 明堂陰陽 | 泰山에서 祭祀지내는 明堂의 遺事로 命名 | 遺事 |
| 春秋[92] | 新國語 | 있는 것을 나누어 논것 | 再細分 |
| | 世本 | 世世의 諡號名, 號를 表示한 것 | 諡號 |
| | 戰國策 | 時期를 앞세우고 士들의 奏謀를 나타낸것 | 奏謀 |
| | 馮商所續太史公 | 後人의 續篇을 나타낸 것 | 續篇 |

〈下略〉

의 性格에 따라 붙인 것임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書名을 보고 內容을 알만큼 構成된 것은 아니다.

### D. 著者名의 表示 :

劉歆이 奏上한 「七略」을 班固가 옮겨놓은 것을 보면 劉歆은 學派만을 밝혀 '施·孟·梁丘三家'라 하였으나 班固는 「漢志」에서 具體的으로 勞作 또는 助力者를 밝힌 것이 있고, 或 알 수 없는 것은 '不知何世'[93] '不知作者'[94] '不知其姓'[95]등으로 表記해 놓고 있다. 이

(88) *ibid.* p. 285. 段上. 中. 六藝略. 易.
(89) *loc. cit.* 段中. 下. 六藝略. 書.
(90) *ibid.* p. 285. 段下. 六藝略. 詩.
(91) *ibid.* p. 286. 段上. 六藝略. 禮.
(92) *ibid.* p. 287. 段上. 六藝略. 春秋.
(93) 董安國十六篇. 不知何帝時《*ibid.* p. 291. 段上. 諸子略. 農家》
宰氏十七篇, 不知何世. 《*loc. cit.*》
尹都尉二十四篇 不知何世《*loc. cit.*》
趙氏五篇 不知何世《*loc. cit.*》
王氏六篇 不知何世《*loc. cit.*》

것은 班固自身이 劉歆의 「七略」을 全部 轉載, 또는 刪削한 것이 아닌 面도 間或 보이는 實證이다.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기는 했으나 傍證資料가 없어서 努力의 痕跡만을 남겨 논 것이다.

### E. 註釋者와 註釋의 內容

旣述한 바와 같이 勞作者 중에서도 註釋者가 多數를 占하고 있다. 이들 註釋을 時代別로 보고 註釋部分을 部門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2.** 註釋者를 中心으로 본 註釋部門

| | | | |
|---|---|---|---|
| 班固： | 漢明帝 | 1～ 8( 58～ 75) | 著者名, 書名, 卷數, 收錄範圍, 殘存狀況, 僞作與否[96] |
| 服虔： | 後漢靈帝 | 1～21( 188～ 189) | 字音解釋[97] |
| 應昭： | 漢獻帝 | 1～19( 190～ 219) | 著者解釋[98] |
| 如淳： | 三國魏 | ( 220～ 265) | 章句解說, 音表示[99] |

(94) 內業十五篇不知作者《*ibid.* p. 288. 段下. 諸子略. 儒家書》
讕言十篇不知作者《*loc. cit.*》
功議四篇不知作者《*loc. cit.*》
儒家言十八篇不知作者《*ibid.* p. 289. 段上. 諸子略 儒家》
宮孫子二篇不知作者《*ibid.* p. 289. 段中. 諸子略 道家.》
道家言六篇不知作者《*loc.* cit.》
衛侯官十二篇不知作者《*ibid.* p. 289. 諸子略 陰陽家》
雜陰陽三十八篇不知作者《*loc.* cit.》
燕十事十篇不知作者《*ibid.* p. 290. 段上. 諸子略. 法家》
法家言二篇不知作者《*loc. cit.*》
雜家言二篇不知作者《*ibid.* p. 290. 段下. 諸子略 雜家》

(95) 待詔臣饒述二十五篇不知其姓《*ibid.* p. 291. 段中. 諸子略. 小說家》

(96) 漢書藝文志에 散見되는 班固의 註釋을 보면 다음과 같다.
六藝略, 易, 易傳周氏二篇, 字, 王孫《*ibid.* p. 285. 段上》(字의 解釋). 易, 古五子 十八篇, 自甲子至壬子, 說易陰陽《*loc. cit.* p. 285. 段中》(書名의 解釋). 書. 尙書古文經 46卷, 爲五十七篇《*loc. cit.* p. 285. 中》(書數校正). 禮, 禪譏對. 十九篇. 武帝時也《*ibid.* p. 286. 中》(書의 著作時期). 春秋. 夾氏傳 11卷. 有錄兵書.《*ibid.* p. 286. 下》(書의 傳存與否》. 同, 議奏. 三十九篇. 石渠論《*ibid.* p. 286. 下.》(著者考證). 同. 世本 十五篇. 古史官記黃帝以來訖春秋時諸侯大夫.《*ibid.* p. 287. 上.》(書의 範圍) 諸子略 小說家 伊尹說 二十七篇. 其語淺薄, 以依託也.《*ibid.* p. 291. 段上.》(僞作考證).

(97) 詩賦略 孫卿書目 別栩陽賦五篇. 栩. 音詡《*ibid.* p. 292. 段中》(字意釋釋) 方技略 經方書目 金創瘲瘛方三十卷. 音廓引之廓《*ibid.* p. 296. 段上》(字意解釋)

(98) 六藝略. 詩. 詩經 28篇, 魯齊韓三家. 申公作魯詩. 后蒼作齊詩, 韓嬰作韓詩《*ibid.* p. 285. 段下》孝經. 弟子職, 一篇. 管仲所作, 在管子書《*ibid.* p. 290. 段下》諸子略. 雜家. 伯象生生一篇, 蓋隱者也. 故公孫數難以無益世主之治《*ibid.* p. 291. 段下》農家. 野老十七篇. 年老居田野, 相民耕種, 故號野老《*ibid.* p. 291. 段上.》小說家. 待詔臣安成未央術一篇. 道家也. 好養生事, 爲未央之術.《*ibid.* p. 291. 段中》小說家. 虞初周說. 九百四十三篇. 其說以周書爲本.《*ibid.* p. 291. 段中》方技略. 經方. 奉始皇帝扁鵲俞拊二十卷. 黃帝時醫也《*ibid* p. 296. 段上》(以上 著者說明)

(99) 六略總序. 於是建藏書之策. 劉歆七略曰, 外則有太常, 太史, 博士之藏, 內則有延閣, 廣內, 秘室之府《*ibid.* p. 285. 段上》(章句解說). 六藝略, 禮, 曲臺后倉 九篇. 行禮射於曲臺, 后倉爲記, 故名曰臺記《*ibid.* p. 286. 段上》(章句解說) 諸子略, 儒家. 讕言十篇. 讕, 音桀爛.《*ibid.* p. 288. 段下》(音表示). 墨家小序. 是以右鬼. 右鬼. 謂信鬼神, 若杜伯射宣王, 是親鬼而右之.《*ibid.* p. 290. 段中》墨家小序. 是以非命. 言無吉凶之命, 但有賢不肖善惡《*ibid.* p. 290. 段中》墨家小

| | | | |
|---|---|---|---|
| 蘇林： | 三國魏 | ( 220～ 265) | 章句解說，音考證[100] |
| 張晏： | 三國魏 | ( 220～ 265) | 書名考證[101] |
| 孟康： | 三國魏明帝 1～30 | ( 227～ 257) | 時期區分，音表示[102] |
| 韋昭： | 三國吳 | ( 264～ 280) | 章句解釋[103] |
| 晋灼： | 晋 | ( 265～ 316) | 章句校正，音表示，制度解釋[104] |
| 顏師古： | 唐高祖 1～ 9 | ( 618～ 626) | 字句解釋，字音 및 字句，數値，系譜 및 評，註釋의 註釋，傳授，解釋 및 傳授，書名의 評，字數의 考證[105] |
| 劉敞： | 宋 | (1041～1048) | 數値解說[106] |

---

序. 是以上同. 言皆同可以治也. 《*ibid.* p. 290. 段中》(以上，章句解說). 小說家小序，蓋出於稗官，稗，音鍛家排. 九章. 細米爲稗，街談巷說，其細碎之言也. 王者欲知閭巷風俗，故立稗官，使稱說之，今世亦謂偶語爲稗. 《*ibid.* p. 291. 段中》(音表示). 數術略. 五行，五音奇賅用兵. 音該 《*ibid.* p. 295. 段上》(音表示).

(100) 六藝略. 禮. 小序. 禮古經者，出於魯淹中. 里名也. 《*ibid.* p. 286. 段中》(章句解說). 六藝略，總序. 易不可見. 則乾坤，或幾乎息矣. 不能見易意，則乾坤，近於滅息也. 《*ibid.* p. 288. 段中》諸子略，墨家，田俅子. 三篇，俅音仇. 《*ibid.* p. 290. 段中》(音表示) 同，小序，是以非命. 非有命者，言儒者執有命，而反勸人修德積善，政敎與行相反，故譏之也. 《*ibid.* p. 290. 段中》(章句解說)

(101) 六藝略，爾雅 三卷. 20篇. 爾. 近也. 雅. 正也. 《*ibid.* p. 287. 段中》(書名考證)

(102) 六藝略. 易小序. 世歷三古. 易繫辭曰：易之興，其於中古乎. 然則伏羲爲上古，文王爲中古，孔子爲下古. 《*ibid.* p. 285. 段中》. (時期區分) 六藝略，書. 小序. 至孔子墓焉. 墓音撰. 《*ibid.* p. 285. 段下》(音表示)

(103) 六略. 總序. 故春秋分爲五. 謂左氏. 公羊. 穀梁. 鄒氏. 夾氏也. 《*ibid.* p. 285. 段上》同. 詩分爲四. 謂毛氏. 齊. 魯. 韓 《*loc. cit.*》 六藝略. 易小序. 人更三聖. 伏羲. 文王. 孔子. 《*ibid.* p. 285. 段中》. 同 書. 議奏. 42篇. 閣名也，於此論書. 《*ibid.* p. 285. 段下》禮. 小序. 禮經三百，威儀三千. 周禮三百六十官也. 三百，擧成數也. 《*loc.* p. 286. 段中》春秋. 馮商所續太史公. 七篇. 馮商受詔續太史公十餘篇，在班彪別錄. 商字子高. 《*ibid.* p. 287. 段上.》同. 小學. 八體六技. 八體，一曰大篆. 二曰小篆. 三曰刻符. 四曰. 蟲書. 五曰 摹印. 六曰. 署書. 七曰. 殳書. 八曰 隸書 《*ibid.* p. 287. 段下》小學. 小序. 史書令史. 若今尙書蘭臺令史也. 《*ibid.* p. 288. 段上》小學. 小序. 臣復續揚雄，作十三章. 臣. 班固自謂也. 作十三章，後人不別. 疑在蒼頡下篇三十四章中 《*ibid.* p. 288. 段上》

(104) 六藝略. 易. 書目. 京氏段嘉. 12篇. 儒林不見. 《*ibid.* p. 285. 段中》禮. 曲臺后倉九篇. 天子射宮也. 西京無太學，於此行禮也. 《*ibid.* p. 286. 段上》 諸子略，名家 小序. 及警者爲之. 警，訐也. 《*ibid.* p. 290. 段中.》(以上，章句校 및 制度解釋) 兵書略，陰陽. 書目. 鶉治子一篇. 鶉. 音夾. 《*ibid.* p. 293. 段中》(音表示)

(105) 六藝略 總序，昔仲尼沒而微言絕，精微要妙之言耳. 《*ibid.* p. 285. 段上.》(字句解釋) 同. 戰國縱橫眞僞分爭. 從音子容反. 《*loc. cit.* 段上.》(字音). 同. 至秦，患之，乃燔滅文章，以愚黔首. 燔，燒之. 秦謂人爲黔首，言其頭黑也. 燔，音扶元反，黔. 音其炎反，又音琴. 《*ibid.* p. 285. 段上》(字句 및 字音) 六藝略. 易. 書目. 易經十二篇. 上下經及十翼，故十二篇 《*ibid.* p. 285. 段上》(數値解釋) 同. 易. 服氏. 二篇. 劉向別錄云，服氏，齊人，號. 服光. 《*ibid.* p. 285. 段上》(系譜) 同. 易. 京氏段嘉. 十二篇. 蘇氏曰：東海人，爲博士. 晋灼曰：儒林不見. 師古曰：蘇說是也. 嘉郎京旁從受易者也，見儒林傳及劉向別錄 《*ibid.* p. 285. 段中》(實은 儒林傳에 京氏만 있을뿐，段嘉는 없다.) 《范 曄 撰，後漢書. 影印本. 臺北，啓明書局，民國 50. p. 466. 段下. 卷109，儒林列傳. 第69. 上》(系譜評) 書. 尙書古文經. 46卷. 爲五十七篇. 師古曰. 孔安國書序云. 凡五十九篇，爲四十六卷. 承詔作傳，引序各封其篇數，定五十八篇. 鄭玄叙贊云. 後又亡其一篇，故五十七. 《*ibid.* p. 285. 段中.》(班固의 註釋의 註釋). 書. 經. 29卷. 此二十九卷，伏生傳授者. 《*ibid.* p. 285. 段中》(傳授). 書. 周書. 71篇. 劉向云. 周時誥誓號令也，蓋孔子所論百篇之錄也. 今之存者四十五篇矣. 《*ibid.* p. 285. 段下》(書名解釋 및 傳授). 禮. 中庸說. 二篇. 今禮記有中庸一篇，亦非本禮記，蓋此之流 《*ibid.* p. 286. 段上》(書名評). 孝經，小序. 古文字讀皆異. 桓譚新論云古孝經千八百七十二字. 今異者四百餘字 《*ibid.* p. 287. 段下.》(字數考證).

(106) 六藝略，禮，禮古經五十六卷. 經七十篇. 此七十. 與後七十. 皆當作十七，計其篇數則，然 《*ibid.*

| | | | |
|---|---|---|---|
| 宋祈： | 宋仁宗 | 1～50(1017～1067) | 章句修正[107] |
| 劉奉世： | 宋哲宗 | 1～ 8(1086～1100) | 字修正，數値校正[108] |
| 李奇： | | | 章句解釋[109] |
| 蘇氏： | | | 傳記[110] |
| 臣佖： | | | 章句解說[111] |
| 臣瓚： | | | 制度，章句解說[112] |
| 漢官： | | | 機關名解說[113] |

이를 一瞥하면 撰人을 紹介，書名을 解釋，卷數를 밝힌 것，收錄範圍를 制定한 것，傳存狀況을 說明한 것，著作與否를 分析한 것，章句를 解釋한 것，字音을 表示한 것，字句와 字音을 註釋한 것，數値를 밝혀 놓은 것，系譜를 評한 것，再註釋을 註釋한 것，傳授狀況을 밝혀 놓은 것，書名을 評한 것，字數를 考證한 것，章句를 修正한 것，著者를 解釋한 것，字句를 修正한 것，數値를 校正한 것，字句를 校正한 것，制度를 考證한 것，傳記를 쓴 것，書

---

p. 286. 段上》禮小序. 禮古經者，出於魯淹中. 讀當云，禮古經者，出於魯滾中，及孔氏，孔氏則安國所得，壁中書也.《*ibid.* p. 286. 段中》禮小序. 孔氏等七十篇文相似. 多三十九篇. 學七十篇當作與十七篇，文相似，五十六卷 第十七，正多三十九也.《*ibid.* p. 286. 段中》(數値解說).

(107) 六藝略，詩，小序. 下取魯. 景本取作采《*ibid.* p. 286. 段上》同. 禮書目. 曲臺后倉九篇. 景本曲臺下有至字.《*ibid.* p. 286. 上》孝經書目. 小雅一篇，小字下，邵本，有爾字.《*ibid.* p. 287. 段下》小學書目. 八體六技(韋昭) 註文署下，當有書字.《*ibid.* p. 287. 段下》韋昭註. 六曰 署. 小學小序. 始建隷書矣. 建. 當作造《*ibid.* p. 288. 上》同. 李長元尙篇…. 李長下，當有作字《*ibid.* p. 288. 段上》諸子略，平原老七篇，老，一作君.《*ibid.* p. 288. 段下》. 同. 鉤質兄從李步昌 八篇. 兄. 當作元.《*ibid.* p. 289. 段上》雜家書目，大帝三十七篇，一作佘.《*ibid.* p. 290. 段下》同 雜家. 淮南外 三十三篇，雜邵本，作新.《*ibid.* p. 290. 段下.》師古의 註에，'內篇論道' 外編新說'라고 되어 있다. 同. 農家書目. 尹都尉十四篇，尹一作郡《*ibid.* p. 291. 段上》兵書略. 陰陽書目，鵊治子. 一篇. 治一作冶.《*ibid.* p. 293. 段中》數術略. 天文書目. 泰階六符一卷. 淳化本，六作陸，《*ibid.* p. 294. 段上》總書. 史官之. 史官之下，舊本，有術學.《*ibid.* p. 295. 段下》

(108) 六藝略. 小學 小序. 史書令史. 史與書令史，二名. 今有書令史.《*ibid.* p. 288. 段上》諸子略. 道家小序. 易之嗛嗛… 嗛若與謙同，何爲作兩字. 蓋易文辭，有云. 嗛嗛者《*ibid.* p. 289. 段下》. 諸子略，小說家，書目集計. 又少十篇.《*ibid.* p. 291. 段中》詩賦略，陸賈，書目. 驃騎將軍朱宇賦三篇. 其實，惟脫一史學字耳.《*ibid.* p. 292. 段上》. 兵書略，兵權謀. 書目集計，種當作重，九下，又脫一篇，註二百五十九，總合五百二十一篇，數民在前《*ibid.* p. 293. 段上》兵書略 總集計 此註二百七十一，又當作五百九十二，兩註篇數皆不足，皆訛謬也.《*ibid.* p. 293. 段下》兵書略. 總序. 軍政楊僕. 軍政，當作正.《*ibid.* p. 294. 段上》

(109) 六藝略，總序，昔仲尼沒而微言絕. 隱微不顯之言也.《*ibid.* p. 285. 段上》. 諸子略，儒家書目，俟子一篇. 或作侔子.《*ibid.* p. 288. 段下》數術略，天文書目. 泰階六符，一卷. 三台謂之泰階，兩兩成體治，政六，觀色以知吉凶，故曰符.《*ibid.* p. 294. 段上.》

(110) 六藝略，易書目，京氏段嘉，12篇. 東海人，爲博士.《ibid. p. 285. 段中》

(111) 方技略，神僊，小序，索隱行怪，後世有述焉，吾不爲之矣. 志序神僊者，內云，孔子曰，素隱行怪，顏師古註云，載孔子之言，索隱，求索隱暗行之事. 臣佖，按禮記中庸篇，有云，子曰，索隱行怪，後世有述焉，吾不爲之矣. 鄭元註云，索如讀攻城，攻其所傃，傃猶鄉也. 音方鄉，避害隱身而行佹譎，以作後世名也. 事爲之矣，耻之也. 今志，作素隱，師古從而解之文註，即，與禮記，不同，意義六相遠故索字，不更刊正作素字.《*ibid.* p. 296. 段中》

(112) 六藝略，禮，小序. 禮經三百，威儀三千. 禮經三百，謂冠婚吉凶，周禮三百，是官名也.《*ibid.* p. 286. 段中》. 孝經. 小序. 諸家說不安處，古文字讀皆異. 孝經云，續莫大焉，而諸家之說各不安處之也.《*ibid.* p. 287. 下》. 小學. 小序. 史書令史. 史書，今之太史書.《*ibid.* p. 288. 段上》

(113) 六藝略. 禮. 曲臺后倉九第. 大射于曲臺.《*ibid.* p. 286. 段上》

名을 考證한 것, 時代를 區分한 것, 機關名을 解說한 것 등이다. 目錄者가 이를 밝힌 것도 적지 않은 業績이거니와 設使 남이 밝혀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目錄者가 이를 蒐集해서 註記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現代 書目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事實임을 알 수 있다.

### F. 眞僞의 考證

더우기 윗 表에서도 指摘되었지만 註釋者 중에서 가장 顯著한 것은 班固가 劉向 當時의 「別錄」「七略」 중에 僞作이 있었다는 事實을 轉載해 놓기도 하였다. 그 表를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3.** 「別錄」「七略」의 僞作部分의 實證

| | | |
|---|---|---|
| 神農 | 아마도 李悝, 商君의 說일 것이며, 神農書는 아닐 것[114] | 語句의 內容 |
| 黃帝泰素 | 韓의 여러 公孫들의 著作으로서 陰陽五行을 말했을 뿐, 黃帝의 道는 아님[115] | 學問의 思想 |
| 周訓 | 人間生活의 枝葉問題를 다룬 것으로 淺薄한것을 보면 周代의 官書가 아닌듯[116] | 依託 |
| 晏子八篇 | 顏師古의 列傳으로 되어 있는 것은 太史公의 글이라 함[117] | 假託 |
| 封胡 | 黃帝臣이라 했지만 假託한 것[118] | 假託 |
| 風后 | 黃帝臣이라 했지만 假託한 것[119] | 假託 |
| 力牧 | 黃帝臣이라 했지만 假託한 것[120] | 假託 |
| 鬼容區 | 黃帝臣이라 했지만 假託한 것[121] | 假託 |
| 伊尹說 | 그말이 淺薄하여 依託한 것[122] | 假託 |
| 鬻子說 | 後世에 添加[123] | 假託 |
| 師曠 | 春秋에도 보이나 그 말이 淺薄함으로 依託[124] | 假託 |
| 務成子 | 堯問이라 함은 古語가 아님[125] | 假託 |
| 天乙 | 天乙을 論이라 했으나 그말이 殷時의 것이 아님[126] | 假託 |
| 黃帝 | 虛誕해서 依託한 것[127] | 虛誕 |
| 大禹 | 禹의 著作이라 하나 그 文이 後世의 것[128] | 後世語 |
| 黃帝君臣 | 六國時의 것으로 老子와 같음[129] | 相似語 |

이를 보면 秦의 焚書坑儒 以後 그 後遺症으로 나타난 僞作書가 許多한 것을 着眼한 目錄學者들은 內容으로 보아 記錄 그대로의 책이 아닌 것을 考證하였고 思想의 歷史的 흐름을

(114) *ibid.* p. 291. 段上.
(115) *ibid.* p. 289. 段下.
(116) *ibid.* p. 289. 段中.
(117) *ibid.* p. 288. 段中.
(118) *loc. cit.*
(119) *ibid.* p. 289. 段中.
(120) *ibid.* p. 293. 段中.
(121-6) *ibid.* p. 291. 段上.
(127) *ibid.* p. 290. 段下.
(128) *ibid.* p. 289. 段中.

보아 記錄 그대로가 아닌듯 素材의 取扱이나 文章의 淺薄으로 當代의 책이 아니라 하였다. 文章의 重複과 文辭의 頗異한 것을 따로 만들었고, 依託, 添加, 虛誕, 後世語로 엮어진 것 相似語 등을 들어 그 眞僞를 밝히고 있다. 이는 劉向, 劉歆이 이미 鑑定해 놓은 것을 班固가 「漢志」에 節錄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 G. 學術의 源流에 대한 考證

또한 學術의 源流를 밝혀 놓은 部分도 間或 있다.

**表 14.** 學術 源流를 實證

| | |
|---|---|
| 京氏段嘉 | 嘉即京氏所從受易者也(漢志 藝文志 易)[129] |
| 經 | 大小夏侯二家, 歐陽經 32卷, 師古曰, 此29卷, 伏生傳授者(漢志, 六藝略, 書)[130] |
| 周書 | 師古曰…盖孔子所論百篇之餘也, 今之存者 45篇(漢志, 六藝略, 書)[131] |
| 史籀 | 周宣王太史, 作大篆 15篇. 建武時, 亡六篇(漢志, 六藝略, 小學)[132] |

六藝略 書目 중에는 京氏段嘉 12節이라고 한 記錄아래에 顏師古가 註하기를 '嘉는 京房에게 易을 가리켜 주었다'하는 句節이 보이고, 同書의 '經'에는 大小夏侯의 二家는 29卷이었다 하였고, 歐陽經은 32卷이었다 하였는데, 顏師古는 註하기를 '이 29卷은 伏生에게서 傳授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同「周書」를 보면 顏師古는 이를 註하여 '大體로 孔子가 論證한 것은 百餘篇이었으나 傳來本은 45篇뿐'이라 하였다. 同略의 小學의 書目 중「史籀」는 周宣王의 太史가 지은 大篆 15篇으로서 建武時에 6篇이 없어졌다 하였다. 이는 모두 當該書에 대한 學問의 源流를 叙述한 것이다.

### H. 圖의 省略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것은「兵書略」을 除外한 모든 略에는 插圖가 빠져 있다. 이 插圖는 글로 表現할 수 없는 部面도 象徵되어 있어야 하려니와 그 圖조차도 削除해 버렸다는 것은 後世의 指彈을 免하기 어렵다. 任宏만은 多幸히 兵書略에 '圖'를 그대로 밝혀놓고[133] 있어서 後日에도 參考될 바 實로 적지 않거니와 劉向이 富參과 같이 校正한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에는 圖가 削除되었고, 尹咸의 數術略, 李柱國의 方技略에도 原圖가 削除되어 있다. 이것은 班固의 잘못도 아니오, 劉歆의 잘못도 아니다. 遡及해 보면 劉向이 祕府書를 整理할 때 疎忽히 여겨 없애 버린데 緣由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漢志」의 兵書略에 '圖'의 表示가 있기 때문에 班固의 削除도 아니오,「漢志」가「七略」의 要略이라면「七

(129) *ibid.* p. 285. 段中.
(130) *loc. cit.*
(131) *ibid.* p. 285. 段下.
(132) *ibid.* p. 287. 段下.
(133) *ibid.* p. 293. 段上. 中. 下.

略」의 흠도 없고 오히려 「別錄」에까지 遡及될 問題라 하겠다.

以上 書目上에서도 여러가지 論難이 可能할 것이나 細碎한 分析은 省略하기로 한다. 다음은 小序와 總序에 나타난 問題이다.

## Ⅲ. 小序, 總序에 나타난 「漢志」의 性格

于先 小序를 보면 漢代人들이 中國學을 어떠한 觀點에서 把握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다. 特히 거기에는 學問의 類別에 대한 焦點이 잘 浮刻되어 있다.

### A. 六略의 境遇 :

伏羲氏가 위로는 하늘에 나타난 諸物의 現象을 보고 아래로는 땅에서 自然(法)을 보고 鳥獸의 발자취와 地質을 보아서 가까이는 自身에서 行할 바를 取하고 멀리는 萬物의 物體에서 取할 바를 取하여 비로소 八卦를 만들어서 이와같은 神明의 德을 通하고 萬物의 情을 分類하게 되었던 事實(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134]의 內容을 들어서 '易'이라 하였고,

中國의 河水에서 圖가 나왔고 洛水에서 書가 나와서 古代의 聖人들이 이를 法則으로 삼았다(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135]고 한 易의 文句와 古代의 政治人들이 百姓을 다스린 命令(古之號令於衆)[136]을 '書'로 보았고,

詩는 뜻을 말하고 歌는 말을 읊은 것(詩言之, 歌永言)[137]으로 「書」에서 語源을 찾고 哀樂의 感情을 나타낸 것이 '詩'라 하는 假定下에서 古代의 採詩官들이 當時의 事情을 읊은 官民의 詩를 묶어서 王에게 바치게 되면 王은 그 詩의 內容을 보아서 風俗의 得失을 안 然後에 좋은 點을 勸奬하고 나쁜 點을 懲戒하여 政事를 바로 잡는데 뜻을 둔 資料로서 民間의 風俗을 보고 政事의 得失(觀風俗, 知得失)[138]을 論한 것을 '詩'라고 보아 왔다.

그뿐만 아니라 夫婦, 父子, 君臣, 上下가 있으면 이에 따라 禮儀도 생긴다(夫婦父子君臣上下, 禮儀有所措)[139]는 易의 句를 보고 夫와 婦, 父와 子 등 간에도 반드시 一定한 秩序가 있으며 이 秩序는 一種의 規則으로 帝王들은 이러한 規則을 바탕으로 하여 誠實(質)과 表示(文)의 過不足을 參酌하여 그 時代에 맞추어 質과 文을 損益함으로써 社會의 秩序를 維持해 가는 一種의 規則[140]을 '禮'로 보고 이를 類似한 項目으로 마련하였는가 하면 先王이 樂을 지어 德을 崇尙하고 성스러이 하늘에 祭祀를 지내며 先祖를 追慕하는 祭祀(先王作樂崇德, 殷薦

(134) *ibid.* p. 285. 段中.
(135) *ibid.* p. 285. 段下.
(136) *loc. cit.*
(137) *ibid.* p. 286. 段上.
(138) *loc. cit.*
(139) *ibid.* p. 286. 段中.
(140) *loc. cit.*

之上帝, 以享祖考[141])에도 伴奏를 하는 禮節의 緣由를 살핀 「易」의 語句와 윗사람을 편안히 하고 百姓을 다스리는데 不可缺하고 風俗을 變易시키는데 있어 큰 作用을 하는 것(安上治民莫善於禮, 移風易俗, 莫善於樂)[142]과 心身을 柔和시키고 더러운 殘滓를 一消시키는 作用을 樂으로 보아 이러한 樂이 風俗을 轉移시키고 氣質을 變化시키는 要因이 곧 音律이라는 面에서 '樂'이라 했다.

古代의 王들이 歷代로 史官을 두고 임금의 擧動을 반드시 記錄함으로써 言行을 愼重히 하고 法式을 밝히게 하는데 그 뜻을 두고 左史는 王의 言行을 記錄하고 右史는 歷史的 事實을 記錄한 것(左史記言, 右史記事)으로서 言은 尙書요, 事는 春秋로 된 歷史的 史實의 筆削(事爲春秋, 言爲尙書)[143]類를 '春秋'라 하였다.

그리고 孔子가 그의 弟子들과 他人들의 물음에 直接 應答한 內容을 비롯하여 間接으로는 孔子가 죽은 뒤에 그의 弟子들간에 스승인 孔子에게서 들었던 말들을 門人이 論纂한 것(主된 思想은 仁)[144]을 모아서 '論語'라 하였으며 孔子가 曾子를 위해서 敎訓한 것으로서 天地에 떳떳한 벼리오, 古今에 通한 義가 되는 百姓이 반드시 行해야 할 經義(天之經, 地之義, 民之行也)[145]중에서 가장 큰 뜻을 지닌 經을 따서 連結시킨 '孝'를 '孝經'이라 하였다.

끝으로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註, 假借 등의 造字가 學問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며 字典 役을 할 수 있는 책들을 모아 옛날 사람들이 8歲가 되면 小學에 들어가서 字本을 익힌다는 意味에서 첫 門인 場所名을 따서 '小學'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上古時代에 있어 結繩政治를 後世人들이 書契[146]로 바꾸어 놓은 以來 모든 學問에 있어서의 入門書처럼 여겨 왔던 것이다.(以上, 六藝略)

위에 例擧한 易, 書, 詩, 禮, 樂, 春秋, 孝經, 小學 중에서 小學을 除外한 모든 項目은 仁義禮智信의 '五常之道'이다. 다음은 諸子略의 경우이다.

文敎에서 나온 것으로서 人君을 도와 陰陽을 順히 하고 敎化를 밝힐 것을 目的으로 하고 仁義에 留意(留意於仁義)[147]해서 堯舜을 으뜸으로 記述하고 文武王을 法삼고 孔子를 스승으로 삼은 思想을 '儒家'라 하였고,

史官에서 나와서 成敗, 存亡, 禍福 등 古今의 道를 거쳐서 集約되어진 말로서 淸虛로써 마음을 지키고 謙遜(卑弱)으로써 修身을 하여 임금된 者가 要點을 잘 알아서 政治의 根本으로 삼는 思想(淸虛以自守, 卑弱以自持)[148]을 '道家'라 하였으며 옛날 羲氏와 和氏의 官에서

(141) *loc. ict.*
(142) *loc. cit.*
(143) *ibid.* p. 287. 段上.
(144) *loc. cit.*
(145) *ibid.* p. 287. 段下.
(146) *loc. cit.*
(147) *ibid.* p. 289. 段上.
(148) *loc. cit.*

나온 것으로서 順天授時의 思想(敬順昊天, 歷象日月星辰, 敎授民時)[149]을 '陰陽家'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또 하나는 先王들이 罰을 밝힘으로써 法을 지켜나가는데(先王以明罰飾法) 있어 좋은 成果에 대해서는 賞을 주고 나쁜일에 대해서는 罰을 줌으로써 禮를 돕게 하는(信賞必罰以神禮制)[150] 思想을 들어 '法家'라 하였고 孔子의 論及을 따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면 言語가 不順하고 言語가 不順하면 事實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151]을 名家라하였으며,

띠로 지붕을 만드는 것 같이 儉素함을 貴히 여기고 高齡者를 奉養해서 自己의 父母처럼 받들고 선비를 뽑되 활쏘기를 하여 賢人으로 待接하고 嚴父를 祭祀지냄으로써 應神을 보고 春夏秋冬에 따라서 行함으로써 運命論을 否定하고 天下의 父母를 孝誠으로 대하여 自己의 父母와 같이 同等히 待接하는 兼愛思想[152]을 '墨家'라 하였다.

한편 孔子께서 "詩 300篇을 외었어도 四方에 使臣으로 가서 自由自裁로 應치 못한다면 무슨 쓸모 있으랴" 하듯 使臣의 身分이면 自由裁量에 맡겨 處理할 수 있도록 自意대로 지울 질 해서 適切히 制定하는 것으로서 命을 받았으나 直接 發해서 應辯하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言其當權爭制宜, 受命而不受辭)[153]說을 '縱橫家'라 하였으며 王의 立場에서 보면 어디고 간에 關係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어디를 置重해서 類別할 수 없는 問題로서 儒墨을 兼하고 名法을 合해서 어느 部類에 偏重될 수 없는 混合의 性格을 지닌것(兼儒墨, 合名法)[154]을 '雜家類'라 하였고 農事를 擔當한 后稷의 벼슬에서 나온 思想의 하나로서 人間의 食糧인 百穀을 播種하고 衣類를 만들 수 있는 蠶業을 위하여 뽕나무를 耕作시키는데(播百穀勸耕桑)[155] 衣食을 充足시키는 것을 '農家'라 하였고,

王官이 巷間의 風俗을 알고자해서 小說家(稗官)를 세우고 執筆시킨 것으로서 巷間의 떠도는 風聞(街談巷語)[156]에 屬하는 部類를 '小說家'라 하였다.(以上 諸子略)

이와 같이 儒家, 道家, 陰陽家, 法家, 名家, 縱橫家, 雜家, 農家, 小說家 중에서 小說家를 除外한 나머지 一端을 끌어서 自己가 좋아하는 바를 崇尙하는 思想을 類別한 것이 '諸子略'이라 하였다.

詩賦略은 屈原賦, 陸賈賦, 孫卿賦, 雜賦, 歌詩 등으로 되어 있다. 賦와 詩의 形式은 틀리나 哀樂에 感動되고 어떠한 事件에 因緣해서 스스로 일어나므로서 그 風俗을 보아 民情의

(149) *ibid.* p. 290. 段上.
(150) *loc. cit.*
(151) *ibid.* p. 290. 段中.
(152) *loc. cit.*
(153) *ibid.* p. 290.
(154) *loc. cit.*
(155) *ibid.* p. 291. 段上.
(156) *ibid.* p. 291. 段中.

厚薄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原來 傳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읊는 것을 賦(不歌而誦 謂之賦)라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事物에 感動, 거기서 發端되어 이루어지는 것(感物造端)[157]을 詩賦略이라 命名하고 있다.(以上 詩賦略)

먼저 作戰을 세운 然後에 兵을 出動시키되 地形(形勢)을 살피고 日辰과 時間을 擇해서 武器(技巧)를 쓰고 正義로서 國土를 防衛하고 戰術로서 兵을 쓰는 類(以下守國, 以奇用兵)[158]는 모두 '權謀'로 하였고.

우뢰와 같이 震動하고 바람과 같이 行動해서 設使 兵을 뒤에 動員하더라도 앞질러 갈 수 있도록하고 흩어졌다, 모여졌다, 옆으로, 앞으로 하여 變化無雙하는 戰法類를 재빨리 制壓(輕疾制敵)[159]한다하여 '形勢'라 하였으며,

生氣를 북돋고(刑德) 縮地(斗擊)를 하며 金木水火土 五行(五勝)을 따라서 鬼神을 불러 도움을 받는 戰術이라하여 때를 가려서 發兵(順時而發)[160]하는 것을 '陰陽'이라 하고 있으나 이의 陰陽은 敬順昊天이나 曆家日月星辰으로 '敎授民情'하는 諸子略의 陰陽家와는 性格을 달리하는 '順時而發'의 陰陽論으로서 이러한 類를 모아 '陰陽'이라 하였으며

武器를 쌓아 놓고 攻防·守備를 위해 人體를 鍛練(習手足)하고 兵器를 能熟히 다루는 것(習捉, 便器械)[161]을 '技巧'라 하였다.(以上, 兵書略)

要컨대, 權謀, 形勢, 陰陽, 技巧 등은 '王官의 武備'를 말하는 것이다.

易에 이르기를 "天文을 봄으로써 時變을 살필 수 있다(觀乎天文, 察時變)고 하여 28宿를 經으로 하고 五星日月을 緯로 하여 吉凶의 象을 測定하는 것(序二十八宿, 步五星日月, 以紀吉凶之象)[162]을 '天文'이라고 規定을 해 놓고,

曆數를 가지고 服色을 定하고 天文의 變化를 測定하고 凶厄의 憂와 吉祥의 喜도 알 수 있으며, 春夏秋冬을 測定해 놓고 春分 秋分 夏至 冬至 및 日의 大小로 細分해 놓은 것으로서 寒暑殺生에 대한 事實의 考察(序四時之位, 正分至之節)[163]을 '曆譜'라 해 놓고,

「書」에 이를 水火木金土(一二三四五의 五行)를 놓고 貌言視聽思(五事)를 應用하기 위하여 金木水火土(五常)의 形象과 氣運(形氣)을 論及한 것(五常之形氣)[164]이다.

歷代聖人들의 獨占物로서 큰 疑心이 있을 때에 隨時로 占치어 遠近淺深의 事情과 未來의 事情을 豫測할 수 있는 이른바 吉凶을 占치는 것(定天下之吉凶)[165]을 '蓍龜'라 하였고,

未來를 알고자하여 占을 쳐서 自身을 褒戒하는 護身術의 하나로서 天文地理와 萬事가 惹

(157) *ibid.* p. 293. 段上.
(158) *loc. cit.*
(159) *ibid.* p. 293. 段中.
(160) *ibid.* p. 293. 段下.
(161) *loc. cit.*
(162) *ibid.* p. 294. 段中.
(163) *loc. cit.*
(164) *ibid.* p. 295. 段上.
(165) *loc. cit.*

起되는 現象을 보고 앞으로 善惡을 豫測하는 것(占事知來)[166]을 雜占이라고 하였으며,

形象에 있어서 氣가 없는 것이 있고 氣가 있어도 形象이 없는 것이 있으므로 그 形象과 氣象의 首尾를 보고 吉凶을 알기 위하여 城郭과 家室의 建築에 있어 地理的인 形勢를 보아 人物의 骨法과 萬物의 形容을 보아 그 貴賤과 吉凶을 가려내는 法度(立城廓室舍, 形人及六畜骨法之度數, 器物之形容)[167]를 '形法'이라 하였다.(以上은 數術略)

要컨대, 天文·曆書에 관한 것(明堂羲和史卜之職)들이다.

一種의 診斷學에 屬하는 學問으로서 百病의 根源을 人間의 血脈과 絡經은 勿論, 骨髓 陰陽表에서 찾아내서 鍼石湯火로 病을 고치는 것(原人血脈經絡骨髓陰陽表裏, 以起百病之本)[168]을 '醫經'이라 하였고,

一種의 藥理學으로서 草石의 寒溫을 가지고 疾病의 淺深을 治療하며 藥을 服用함으로써 水火의 失調를 바로잡아 平常時와 같은 正常의 氣血을 恢復시키도록 하는 것(致水火之劑, 以通閉解結, 反之於平)[169]을 '經生'이라 하고 있으며, 性慾을 抑制하지 않는 限, 病이 생기고 壽命이 減少되는 現象의 露呈을 막기 위해서 外道를 禁止하고 性慾(內情)을 抑制함으로써 百事가 順調로우며 壽命이 延長될 수 있는 것(禁內情)[170]을 '房中'이라 하였다. 그리고 性命의 참다움을 保存하기 위하여 欲心을 除去하고 마음을 平穩히 함으로써 生死의 域을 超越하는 것(憑意平心)을 '神仙'이라고 하고 있다.(以上은 方技略)

要컨대, 人體의 正常을 維持하기 위한 이른바 一種의 現代醫學에 屬하는 것들이다.

以上은 從來의 東洋的 學問의 區分方法을 明示한 것으로서 秘府에 있던 책에서 落帙을 陳農에 依해 채우고 溫室의 典籍을 劉向이 篇目을 갈라놓고, 그 뜻을 抽出해서 叙錄한 것이었으며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던 業을 繼承하여 맺아 놓고 그 뒤에 溫室에서 天祿閣으로 옮겨졌던 秘府의 典籍과 外書를 綜合하여 尨大한 體系를 세운 것이 劉歆의 業績이오, 그가 본 온 天下의 典籍을 人間의 行爲와 自然의 順應에 따른 여러 面을 考察해서 六略으로 區分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區分의 焦點은 類似項目을 識別해 놓은 것으로 看做되는데, 六藝略에 論及된 것을 보면 學問 중에서 樂은 仁의 表요, 詩는 義의 用이오, 禮는 體를 밝힘이오, 書는 智慧의 技術이오, 春秋는 實地 한 일을 믿음으로써 이 다섯가지(樂 詩 禮 書 春秋)를 五常의 道라 하여놓고 易이 五常의 根源이 된다는 것을 着眼하여 區分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둘째, 諸子略의 論及을 보면 漢代 以前에 紛然되었던 思想을 九家로 區分해 놓고 그 長點을 들어 崇仰할 것을 崇仰하고 崇仰치 못할 것을 參考로 보도록 類別하여 한 項目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詩賦略에서 政治的 道具의 思想으로 여겨오던 點과는 달리

(166) *ibid.* p. 295. 段中
(167) *ibid.* p. 295. 段下
(168) *ibid.* p. 296. 段上.
(169) *loc. cit.*
(170) *ibid.* p. 296. 段中.

在野에 숨은 隱士들이 世風을 諷刺해서 이룩된 詩類를 綜合해 놓은 것이었다.

넷째, 兵書略을 보면 富國安民을 위해서 國土防衛를 위한 兵法과 武器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 數術略은 都邑地의 擇地에 대한 風水說을 觀察하여 政事를 베푸는데 參考로 삼았으며 未來事에 대한 占卜도 이 類에 包含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섯째, 方技略에 나타난 思想을 보면 人間이 正常的으로 肉體를 保存하고 生命을 延長시킬 수 있는 項目들을 綜合해 놓은 一種의 醫術과 仙道이다. 따라서 이러한 類別을 班固는 「漢志」에 增削하여 다시금 紹介한 것에 不過하다. 이와 같이 異質的인 性格을 지닌 것을 劉歆은 어떻게 基準을 세워 區分하였을까. 그 基準은 아마도 傳習되어야 할 古典, 學派가 相同한 思想書, 分野別로 된 專門技術書, 文章體裁로 된 詩賦書 등으로 類別한 感을 주고 있다. 이것을 各類別로 細分해 보면 古書를 對象으로 한 것을 六藝略으로, 思想書를 諸子略으로, 文章을 體裁로 區分할 수 있는 것을 詩賦略으로, 戰略에 關係된 것을 兵書略으로, 職業으로 區分될 수 있는 것을 數術略으로 生命에 關係되는 것을 方技略으로 區分하고 있다.(171)

그런데 여기서 問題되고 있는 것은 一般書目보다 特色을 이루고 있는 이 '小序'나 '總序'의 附記가 어떤 形式으로 叙述되었는가이다. 이의 形式은 後世 書目을 作成하는데도 參考가 될 것이므로 들리는 形式만 拔萃 分析해 보고자 한다.

**例 1.** 宓戲氏仰觀於天, 俯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宜, 近取諸事,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定義>

至于殷周之際, 紂在上位, 逆天暴物, 文王以諸侯, 順命而行道, 天人之占, 可得而効. 於是, 重易六爻, 作上下篇. 孔氏爲之彖, 象·繫辭·文言·序卦之屬十篇. 故曰, 易道深矣, 人更三聖, 世歷三古. 及秦燔書, 而易爲筮卜之事, 傳者不絕. 漢興, 田何傳之. 訖于宣·元, 有施·孟·梁丘·京氏·列於學官, 而民間有費高二家之說.　　<變遷과 傳授>

劉向, 以中文易經, 校施·孟·梁丘經, 或脫去無咎·悔亡, 唯費氏經, 與右文同(172)

<校正>

---

(171) 그러나 絕對的인 것은 아닌듯 하다. 例를 들면 ① 六藝略의 春秋속에 있는 "國語, 新國語, 世本. 戰國策, 奏事, 楚漢春秋. 太史公. 馮商所續太史公, 太古以來年紀, 漢著記, 漢大年記紀《ibid. p. 286. 段下 287. 段上》등은 春秋家學이 아닌 史記인데도 春秋속에 넣었고, ② 六藝略속의 小學類《*ibid.* p. 287. 段下》를 經書의 理解에 있어 基礎的 補助科學으로 看做한다면 六藝略에 넣었다 해서 別 問題가 아니 될것이나, 專門分野로 볼때에는 兵書, 數術, 方技略 등과 같이 이는 한 特定分野에 屬한듯 하고, ③ 諸子略에 있는 小說《*ibid.* p. 291. 段中. 下.》은 依例히 文章體裁面으로 볼때에 詩賦略 속에 넣어야 할 것이며, ④ 詩賦略 屈原賦 속에 唐勒賦, 宋玉賦, 枚乘賦, 司馬相如賦《*ibid.* p. 291. 段下》 등은 風流作이 아닌데도 風流作에 들어 있으니 이는 陸賈賦속에 들어 있는 楊雄賦와 接近시켜야 할 것이었고, ⑤ 數術略 曆譜속에 들어 있는 帝王諸侯世譜, 古來帝王年譜《*ibid.* p. 290. 段中》 등은 오히려 六藝略 春秋뒤에 잘못 들어 있는 國語 등 國家와 接近시켜야 할 것이었고, 또한 諸子略의 陰陽家《*ibid.* p. 295. 段上》는 性質上으로 보아 數術略의 天文, 曆譜, 五行, 蓍龜, 雜占 등에 接近시켜야 할 것이었고, 同形法속에 있는 器物을 形容한 宮內地形, 相面의 骨髓의 度數를 말한 相人과 器物의 形容을 말한 相寶劍刀와 相六畜의 骨法, 度數의 相六畜《*ibid* p. 295 段下》 등을 地理인 形法에 넣었다는 것은 역시 잘못이다.

(172) *ibid.* p. 285. 段中.

學問의 源流를 中心으로 構文한 것이다. 이것은 後代에까지 傳授될 수 있는 것이어서 變遷도 可能하려니와 다음의 諸子略 儒家의 例를 보면 傳授될 수 없는 性格도 있다. 即,

**例 2.** 儒家者流, 蓋出於司徒之官, 助人君順陰湯·明敎化者也. 游文於六經之中, 留意於仁義之際, 祖述堯舜, 憲章文武, 宗師仲尼, 以重其言, 於道最爲高. <定義>

孔子曰「如有所譽, 其有所試」唐虞之隆, 殷周之盛, 仲尼之業, 已試之效者也. 然惑者旣失精微, 而辟者又隨時抑揚, 違離道本, 苟以譁衆取寵. 後進循之, 是以五經乖析, 儒學寖衰, 此辟儒之患.[173] <評價>

그뿐만 아니라 兵書略의 境遇, 兵權謀를 보면 '變遷과 傳授 및 評價'는 姑捨하고 다만 '定義'만을 내리고 있다. 그것은 精神上에 있어서 變遷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例 3.** 權謀者, 以正守國, 以奇用兵, 先計而後戰. 兼形勢, 包陰陽, 用技巧者也.[174] <定義>

그러나 數術略에 있어서는 이와는 다르다.

**例 4.** 天文者, 序二十八宿, 步五星日月, 以紀吉凶之象, 聖王所以參政也. 易曰,「觀乎天文以察時變」 <定義>

然星事殆悍, 非湛密者, 弗能由也. 夫觀景以譴形, 非明王亦不能服聽也. 以不能由之臣, 諫不能聽之主, 此所以兩有患也.[175] <留意>

여기서는 漢代에 이르기까지 學問的인 變遷은 없었던 탓인지 이에 대한 變遷의 記述은 없고, 오히려 다른 項目과는 달리 注意하여야 할 留意事項을 揷入하고 있다. 끝으로 方技에 있어 醫經의 境遇를 보면,

**例 5.** 醫經者, 原人血脈經絡骨髓陰陽表裏, 以起百病之本, 死生之分. <定義>

而用度箴石湯火所施, 調百藥齊和之所宜. 至齊之德, 猶磁石取鐵, 以物相使. 拙者失理, 以癒爲劇, 以生爲死.[176] <留意>

變遷은 勿論 禁忌도 없으며 다만 正常體의 維持를 위하여 注意를 喚起시키는 事項이 있을 뿐이다.

以上 叙述을 通貫해 보면 大體로 세가지로 文이 構成되어 있다. 初章에는 定義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中章은 六藝略의 경우 學問의 源流(變遷과 그 傳授)를 中心으로 엮었고 그밖의 詩賦略을 除外한 4略은 모두 源流에 대한 記述은 없다. 終章을 보면 校正을 밝힌 것(六藝略)도 있고, 評價를 한 것(諸子略)도 있고 禁忌를 警告한 것(數術略)도 있고, 使用上

(173) *ibid.* p. 289. 段上.
(174) *ibid.* p. 148. 段上.
(175) *ibid.* p. 294. 段中.
(176) *ibid.* p. 296. 段上.

留意할 點을 밝힌 것(方技略)도 있다. 다만 詩賦略은 小序조차도 없으며 兵書略은 定義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그 當該資料의 性格 如何에 따라 記述했다 하겠다.

그러나 總序에 있어서는 그 文章이 比較的 긴 편이나 小序와 같이 性格이 多樣하지 않다. 그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例 1. 〈六藝略總序〉 六藝之文, 樂以和神, 仁之表也. 詩以正言, 義之用也. 禮以明體, 明者著見, 故無訓也. 書以廣聽, 知之術也. 春秋以斷事, 信之符也. 五者, 盖五常之道, 相須而備, 而易爲之原. 故曰, 「易不可見, 則乾坤或幾乎息矣」. 言與天地爲終始也. 至於五學, 世有變改, 猶五行之更用事焉. <大勢>

古之學者, 耕且養, 三年而通一藝, 存其大體, 玩經文而已, 是故, 用日少而畜德多, 二十而五經立也. 後世經傳, 旣已乖離, 博學者, 又不思多聞闕疑之義, 而務碎義逃難, 便辭巧說, 破壞形體. 說五字之文, 至於二三萬言. 後進彌以馳逐, 故幼童而守一藝, 白首而後能言. 安其所習, 毁所不見, 終以自蔽. 此學者之大患也. 序六藝爲九種[177] <批評>

이 文을 大段으로 區分해 보면 學問의 大勢와 批評에 대하여 詳述한 反面에 또한 文은 길더라도 內容은 한 줄거리로 된 것도 있다.

例 2. 〈兵書略 總序〉 兵家者, 盖出古司馬之職, 王官之無備也. 洪範八政: 八曰師. 孔子曰:「爲國者, 足食足兵, 以不敎民戰, 是謂棄之」 明兵之重也. 易曰:「古者弦木爲弧, 剡木爲矢, 弧矢之利, 以威天下」, 其用上矣. 後世燿金爲刃, 割革爲甲, 器械甚備. 下又湯武受命, 以師克亂而濟百姓, 動之以仁義, 行之以禮讓, 司馬法是其遺事也. 自春秋至於戰國, 出奇設伏, 變詐之兵並作. 漢興, 張良韓信序次兵法, 凡百八十二家, 刪取要用, 定著三十五家. 諸呂用事而盜取之. 武帝時, 軍政楊僕捃摭遺逸, 紀奏兵錄, 猶未能備. 至于孝成, 命任宏論次兵書爲四種.[178] <大勢>

以上을 보면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은 學問의 大勢와 批評을 兩斷하여 論及하였고, 兵書略, 數術略, 方技略은 批評이 全혀 없이 學問의 大勢만을 論及하였다. 이의 分析이 어느 程度 近似하다면 前項 小序는 當該書目을 利用하는데 直接的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學術의 源流와 評價와 留意를 詳述하는데 注眼을 둔 것 같고, 本項의 總序에서는 當該學問이 處하고 있는 趨勢를 解說해 줌으로써 앞으로의 指向을 模索시키려는데 注眼을 둔 것 같다.

## 結　言

以上의 叙述을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漢志」는 六略으로서 38種, 596家, 13,269卷의 典籍을 目錄한 것으로서 當代에 散佚되었던 典籍의 片貌를 알 수 있게 엮었고,

(177) *ibid.* 4.288. 段中.
(178) *ibid.* p.293. 段下. 294. 段上

둘째, 別錄과 七略을 만들기까지의 過程으로는 물론 落帙의 補完, 脫誤의 訂正, 校勘, 刊改, 分類, 編目, 源流의 考證, 解題, 體系化, 存疑分의 解釋 등 9段階의 作業을 거쳐 整理되었고, (表1 參照)

셋째, 劉歆이 父業을 마친 過程은 그중에서도 溫室에서 天祿閣으로 옮길 때 藏書移動을 위하여 分類와 篇目에 注力하여 「七略」을 만든듯 하며,

넷째, 「七略」을 다시금 刪削한 것이 「漢志」로서 이 「漢志」의 勞作者는 班固이겠으나 班固 以後 顔師古의 註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8名이 動員, 顔師古 以後의 註者 셋을 合하면 「漢志」를 注한 者가 無慮 12名이나 된다는 것,

다섯째, 「七略」중 落帙을 補充한 謁者 陳農, 經傳, 諸子, 詩賦略을 校한 光祿大夫 劉向과 富參, 兵書略을 校한 步兵校尉 任宏, 數術略(占卜下書)을 校한 尹咸, 方技(醫書)를 校한 侍醫 李柱國 등은 모두 主題背景이 堅實하며 斯界의 一人者였고, 「漢志」의 勞作者 班固를 비롯한 服虔, 應邵, 如淳, 蘇林, 張晏, 孟康, 韋昭, 晉灼, 顔師古, 宋祁, 劉敞, 劉奉世 등도 모두 一家見을 가진 學者로서 當代의 著名人이었으며, 書名을 作成한——勞作者라 할지라도 現代의 司書와는 달리——學者였음이 確實하다.

여섯째, 「漢志」는 얼른 보아 書名, 篇數, 著者, 注解, 小序, 總序 등 보잘 것 없는 一 書目인듯하나 實은 그 資料가 雕板 以前의 것이어서 甲骨, 鍾鼎, 彝器, 竹帛, 金版, 石刻, 石鼓, 簡策, 摹寫, 傳搨, 卷子, 葉子 등을 그 程度라도 밝혀 놓기란 實로 쉽지 않았을 것이며 이것은 이미 「別錄」「七略」을 要約한 것이라고 본다면 「漢志」의 勞作보다 그 前書(「別錄」「七略」)들이 더욱 높이 評價되고 있다.

일곱째, 分類에 있어서는 易의 境遇, 魯나라 商瞿子木이 孔子로부터 周易을 배웠고, 魯稿庇 子庸에게 이를 가르쳐 준 다음 子庸이 江東臂 子弓에게, 子弓은 燕의 周醜 子家에게, 子家는 東武 子孫虞 子乘에게, 子乘은 齊의 田何 子裝에게, 등등 田何→田寬→田王孫→施讎→張禹→彭宣順으로 傳해져서 '施孟梁丘之學'과 '張彭之學'을 이루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隱士에게서 焦延壽→京房→梁丘賀→梁丘監→五鹿充宗→士孫 등의 系列로서 傳授되어 '京氏之學'과 '士孫鄧衡之學'을 이룬것을 細分하여 略 중에 配慮하고 官學을 앞세우고 民間學을 後置하는 등 經, 傳, 訓詁, 章句順으로 配列하면서도 深奧하게 다루었으며, 傳習되어온 古典學派가 相同한 思想書, 分野別로 된 專門技術書, 文章의 體裁 등에 關心을 두고 古典을 對象으로 한것은 六藝略으로, 思想을 對象으로 한것을 諸子略으로, 文章을 中心한 文獻은 體裁로 區分하여 詩賦略으로, 戰略에 관한 것을 兵書略으로, 職業으로 區分할 수 있는 것을 數術略으로 生命과 關係있는 것을 方技略으로 區分해 놓고 있다.

여덟째, 書名의 構成에 있어서는, 原經과 注疏의 區分, 人名, 干支, 師說, 內容, 學派, 章句, 行狀, 誥, 誓, 號令, 論難, 國名, 七十弟子의 記錄, 遺事, 再細分, 諡號, 莢謀, 續篇 등을 媒介로 하고 있다.

아홉째, 註記에 있어서는 撰人의 紹介, 書名의 解釋, 卷數의 緣由, 收錄範圍의 制定, 傳存의 狀況, 僞作與否, 章句의 解釋, 字音의 表示, 字句와 字音의 註釋, 系譜, 註釋의 註釋, 傳授의 狀況, 解釋의 傳授, 字句의 修正, 制度의 考證, 傳記, 書名의 考證, 時代의 區分, 機關名의 解說 등을 하고 있다.

열째,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것은 圖를 省略 ('兵書略' 以外의 것)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勿論 「漢志」의 잘못은 아니다. 이미 나왔던 「別錄」「七略」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理由는 兵書略에는 圖가 省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한째, 小序 속에서는 그렇게 尨大한 典籍들을 紹介하면서 易은 神明의 德을 通하여 萬物의 情을 分類해 놓은 것'이라 하였고, '書'는 '옛날의 號令'이라 하듯 六略 중 各家를 이와 같은 方法으로 매우 簡單明瞭하게 解說하여 그 內容을 쉬이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열둘째, 小序를 어떠한 形式으로 썼는가 하는 問題는 後世書目의 作成에 있어서도 매우 參考될 만하다. 몇가지 異例를 一瞥해 본 바 初章에서는 當該略에 있어서의 定義를 내리었고, 中章에서는 學術의 源流를 밝혔으되 이는 六藝略에만 限하였고, 終章에 있어서는 評價로 그치었다. 다만 數術略에서는 禁忌事項을 밝혀 놓고 方技略에서는 留意點 등을 밝힌 것이 特徵이다.

열셋째, 總序에 있어서는 小序와는 달리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은 學問의 大勢와 批評을 加하였고, 그 밖의 兵書略, 數術略, 方技略 등은 아무런 批評없이 大勢만을 論하고 있다.

그러나 致命的인 것은 分類에 있어 間或 基準과 어긋나는 것도 있고, 重出된 것이라 하여 함부로 削除시킨 것도 있어 「漢志」로서 缺陷도 없지 않으나 現存書로는 「漢志」밖에 없으므로 資料의 稀貴性은 勿論 「漢志」가 「七略」을 要約했다는데서와 그 以前의 目錄學書인 「七略」의 片貌를 推測할 수 있다는데서 더욱 價値가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더우기 當時의 司書 即 目錄을 作成한 者들의 地位가 매우 높았던 것은 現代와는 對照的이라 하겠다.